

학서(鶴棲) 류이좌(柳台佐)의 갱화(賡和)와 응제(應製)에 관하여

심 경 호*

■ 국문초록 ■

본고는 정조 연간 내각강제문신(內閣講製文臣)에 초계(抄啓)되었던 학서(鶴棲) 류이좌(柳台佐, 1763~1837)의 갱화(賡和)와 응제(應製)의 사실을 고증하고, 그의 문집에 갱화 및 응제의 시문이 많이 수록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한 것이다. 류이좌의 문집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이하 ‘학서집’)은 1902년경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류이좌 생전의 자편고(自編稿)를 저본으로 삼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의 편수는 많지 않고, 제2권은 만시(挽詩)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유문(遺文)의 정리자 및 간역(刊役) 주체들은 시를 모은 제1권에 류이좌가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있으면서 정조의 어제(御製)에 갱화한 8제, 초계문신친시(抄啓文臣親試)에서 응제한 15제를 전면에 배치했다. 그만큼 류이좌의 초계문신 시들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시들을 통해 류이좌 시의 습속도(習熟度), 온축의 농밀(濃密), 정론(政論)의 지향(指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류이좌는 정조가 현릉원에 배알하여 효성을 보이고 명나라에 대한 보은(報恩)의 뜻을 잊지 않아 맑은 시절을 가져온 사실, 황극(皇極)을 세워 정치를 안정시키고 백성들 삶을 윤택하게 만든 사실을 칭송했다. 하지만 『일성록(日省錄)』, 『내각일력(內閣日曆)』, 그리고 갑인년 선발에 가초(加抄)된 이희발(李羲發, 1768~1850)의 문집 『운곡집(雲谷集)』을 류이좌의 문집과 대조하여 보면, 갱화와 응제의 시들이 상당히 누락되었다. 더구나 친시(親試)나 과시(課試)에서 응제(應製)한 시문 가운데 시 이외의 문체들은 거의 수록하지 않아, 전(箋) 2편과 명(銘) 1편만 수습되어 있다. 본래 류이좌는 부화(浮華)한 문풍을 배격하고 자득(自得)의 실공(實工)을 중시했다. 6대조 류원지(柳元之)의 유훈시(遺訓詩)에 차운하여 「선조 졸재선생 9수의 시에 삼가 차운하대(敬次先祖拙齋先生九首詩韻)」를 지은 것을 보면 평소 류이좌는 돈목(敦睦), 자수(自守), 섭세(涉世), 산거(山居), 자책(自責), 권학(勸學), 독서(讀書), 자성(自省)을 강조했다. 또 류이좌는 정조가 『어정육주약선(御定陸奏約選)』,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 『사기영선(史記英選)』 등 선집(選集)이나 초집(抄集)을 편찬하는 것에 대해서 문교(文教)의 진작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고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간편함을 추구하게 만들까 걱정스럽다고 정조에게 의견을 말하기까지 했다. 정조의 초계문신 제도는 정치 이념을 확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제술의 부과는 초계문신의 학문 진작을 방해했다. 정약용(丁若鏞)의 경우도, 초계문신 시절 어제 책문(御題策問)에 대한 대책(對策) 작성을 통해서 학문·지리·경제·정치의 각 방면에 걸쳐 기초지식을 축적했으면서도, 초계문신 시절의 제술에 대해 후회하고 특히 사육문(四六文)의 응제문은 ‘교언(巧言)’이라 규정하고, ‘후회를 표시하기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 / sim1223@korea.ac.kr

위해' 그 대부분을 『열수문황(冽水文黃)』에 수록하여 문집과는 구별했다. 류이좌에게 정조의 학문 기획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의식이 있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류이좌는 수석을 차지한 시문의 경우도 수습해 두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표전(表箋)이나 율부(律賦)의 문체는 정리해 둘 생각이 그리 없었던 듯하다.

[주제어] 학서(鶴棲), 류이좌(柳台佐), 『학서집(鶴棲集)』, 초계문신(抄啓文臣), 친시(親試), 과시(課試), 갱화(賡和), 갱재(賡載), 응제(應製), 표전(表箋), 이희발(李羲發), 정약용(丁若鏞)

Ⅰ 목 차 Ⅰ

I. 머리말	IV. 『학서집』 미수록의 응제(應製)
II. 학서의 갱재(賡載)	V. 맺는 말
III. 학서의 친시제(親試製)와 과시제(課試製)	부록 : 1794년부터 1800년까지 초계문신 과시(課試) 실시 상황

I. 머리말

학서(鶴棲) 류이좌(柳台佐, 1763~1837)의 본관은 풍산(豐山)으로,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8대손이다. 자는 사현(士鉉)이며, 또다른 호는 농아(聾啞)이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학서는 본래 이름이 태조(台祚)였으나 꿈의 조짐에 따라 향렬과 달리 태좌(台佐)로 개명했다고 한다.¹⁾ 문중의 전승에 의하면, 정조가 ‘네가 나를 보좌하라’라고 하여, 이후 ‘台’를 너 ‘이’의 발음과 뜻으로 읽게 되었다고 한다. 본고는 문중의 전승을 존중하여, 학서의 이름을 ‘이좌’로 읽는다. 단, 글 중에는 이름보다 ‘학서’라는 호로 부르기로 한다.

문집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이하 ‘학서집’)은 1902년경 목판으로 간행되었다.²⁾ 학서의 장남 류희목(柳希睦, 1786~1804)은 조물하고, 학서의 사후 차남 류기목(柳祈睦, 1802~1861)과 류교목(柳敎睦, 1810~1874) 및 그들의 아들들이 문집 간행을 추진했다. 류기목은 학서의 가장(家狀)을 짓고 류상조(柳相祚)에게 묘지명을 받았으며, 류교목은 1869년경 아들 류도창(柳道昌)을 이휘재(李彙載)에게 보내 행장(行狀)을 지어 받았다. 류기목의 아들로써 백부 류희목에게 입양된 류도성(柳道性, 1823~1906)은 이종상(李鍾祥)에게서 묘갈명을 지어 받았다. 또한 산천(山泉) 박주중(朴周鍾, 1803~1877)과 민산(閩山) 류도수(柳道洙, 1820~1889)가 유고 교정에 참여했으며, 1902년경 판각이 이루어졌다.³⁾ 본집은 20권 10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 敎柳台佐曰: “爾之行列, 何其不同耶?” 台佐曰: “仍夢兆而改名矣.” 『승정원일기』 91책(탈초본 1727책) 정조 18년 3월 10일 정유.
2) 초간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2301),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596), 장서각(D3B-1875), 규장각(奎12269)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문집총간』 속107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아 영인했다.
3) 류도성이 숙부 류교목의 졸후 29년이 되는 1902년 무렵에 지은 改葬 祭文에 “祖考遺集, 竭盡心力, 仰副當日畀付之意. 雖得繡梓. 物力不敷, 未克印布.”라는 기록이 있다. 학서의 저술로는 문집 이외에 1792년 영남만인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지은 『聞揮錄』, 정조 승하 후 초계문신 때 講製한 글과 恩諭를 모아 엮은 『百世隕結錄』, 만년에 평소 誦讀하던 朱子의 글을 모아 정리한 『記誦錄』, 漢宋 이래 先儒들의 격언과 東國 先正들의 奏章을 모은 『恭敬編』 등이 있다. 상당 부분이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草稿로 전존한다. 『천하록』은 1933년 일부 내용이 개정 증보되어 신연활자로 간행되었다. 이후 6대손 柳永夏와 柳澤

권1에 시 119제(題), 권2에 시 48제, 총 167제가 수록되어 있다.

『학서집』은 자편고(自編稿)를 저본으로 삼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의 편수는 많지 않고, 제2권은 만시(挽詩)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학서 유문(遺文)의 정리자 및 간역(刊役) 주체들은 시를 모은 제1권에 학서가 초계문신(抄啓文臣)⁴⁾으로 있으면서 정조(正祖)의 어제(御製)에 갱화(賡和, 賡載)⁵⁾한 8제, 초계문신친시(抄啓文臣親試)에서 응제(應製)한 15제를 전면에 배치했다. 그 시들보다 앞선 시기의 시로는 「우제(偶題)」, 「옥연춘망(玉淵春望)」, 「반사야음(泮舍夜吟)」의 3편뿐이다.

학서의 부친은 류사춘(柳師春, 1741~1814), 모친은 연안 이씨(延安李氏, 1737~1815)이다. 류사춘은 서에 류성룡의 7대손으로 풍창군(豐昌君) 류운(柳濤, 1485~1528)의 4남이다. 부인 연안이씨는 예조판서를 지낸 이지억(李之億, 1699~1770)의 3녀이다.⁶⁾ 류사춘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7세 때인 1769년(영조 45년)에 학서는 중형 류상조(柳相祚)와 함께 백부 외재(畏齋) 류종춘(柳宗春, 1720~1795)에게 수학했다. 류종춘은 1791년(정조 15) 음직에 천거되어 의금부도사 등을 역임하고 첨지중추에까지 올랐으며, 학계(學契)를 만들고 학숙을 열었다.⁷⁾ 학서는 『애문제자록(厓門諸子錄)』을 작성했는데, 풍산류씨 가학은 류중영(柳仲郢)에게서 시작되어 류성룡으로 이어졌다. 그 후, 류진(柳珍) - 류원지(柳元之) - 류의하(柳宜河) · 류세명(柳世鳴) - 류후장(柳後章) - 류성화(柳聖和) - 류성회(柳聖會) - 류운(柳濤) - 류종춘(柳宗春) · 류심춘(柳尋春) - 류이좌로 이어졌다고 한다.⁸⁾

풍산류씨 학맥에서 류성룡 이후 중앙 관직에 진출한 사람으로는 졸재(拙齋) 류원지(柳元之, 1598~1678) 밖에 없었다.⁹⁾ 1623년 인조반정을 계기로 영남 남인들이 정계에서 멀어지고, 갑술환국 이후 근기남인마저 도태하자, 풍산류씨는 향촌에 고립되었다.¹⁰⁾ 1792년(정조 16) 류성한(柳星漢)이 정조를 음해하는 상소를 올려 정국이 혼란했을 때,¹¹⁾ 영남 선비들은 2차에 걸쳐 만인소(萬人疏)를 작성했다. 4월 27일 영남 유생들의

夏 등이 초간본의 주요한 글들을 발췌 번역하고 초간본을 별책으로 영인하여 2000년 대구의 大譜社에서 『國譯鶴棲先生文集』 2冊을 간행했다. 번역은 柳龍佑가 담당했다. 권수에 李載浩의 해제와 世系圖를 수록했다. 번역된 부분은 詩(15題), 疏(2), 序(1), 記(1), 雜著(1), 傳(1), 箋(1), 教書(1), 上樸文(1)과 中庸講義問答, 大學問對, 大學故寔, 朱子大全故寔, 國朝故寔, 부록 중의 사제문, 행장, 묘갈명이다.

4) 정조는 재위 5년(1781, 신축)까지 규장각의 기능과 관계가 확립되자, 이 해 2월 抄啓文臣 제도를 만들었다. 곧, 科擧를 거쳐 등용된 堂下官 가운데 參上參下的 槐院 分館의 37세 이하 문신을 선발하여 4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회 試講하고, 매월 1회 製述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 제도는 集賢殿 賜暇讀書制, 讀書堂 제도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經과 史를 강론하는 ‘講’과 문제별로 작문하는 ‘製’로 3년간 재교육하는 제도이다.

5) 갱화: 군주의 시에 신하가 화답하는 것을 말한다. ‘賡載’라고 한다. 『서경』 「虞書·益稷篇」에서 순 임금의 신하를 권면하는 뜻의 노래를 부르자 皋陶가 다시 임금을 권면하는 뜻의 노래를 부른 데서 기원한다.

6) 이지억은 伯父 李萬成에게 입양되었다. 이만성의 딸은 蔡濟恭(1720~1799)의 어머니로 연안이씨와 재제공은 재종 혹은 내종간이 된다. 이지억의 아들 善延은 요절했고, 딸들은 각각 尹恒鎭, 鄭章簡, 柳師春에게 시집을 갔다. 蔡濟恭, 「外祖考贈吏曹判書行刑曹正郎李公墓碣銘」, 『樊巖先生集』 권50; 柳台佐, 「外王考禮曹判書府君醒軒李公家狀」, 『鶴棲先生文集』 권19.

7) 이병훈, 「1800년에 작성된 풍산류씨 學稷案 해제」, 유교넷 참조.

8)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家の 學風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2014, 62~63쪽.

9) 『豊山柳氏世譜』, 豊山柳氏門中宗會, 2007.

10) 이수진,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김성우, 「정조대 영남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 2012, 184~186쪽.

11) 『正祖實錄』 16年 閏4月 4日 壬申條. “啓言: 柳星漢疏語之窮凶, 情節之陰惡, 諸臣劄啓, 亦已概論. 今以其疏中逆心之呈露, 凶言之悖慢者言之, 最是上款講學之說, 而特以聖懷之不忍提到, 諸臣之不敢語及, 近臣疏啓, 每多隱映爲辭, 此固出於體聖上茹痛之

상소는 성균관의 근실(謹悉)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못했으나, 현직 교리 김한동(金翰東)의 단독 상소는 받아들여졌다. 5월 7일 두 번째로 상소하려 했지만, 5월 21일의 사도세자 기일과 가깝다는 이유에서 중지되고, 유생들은 5월 27일 안동에서 도회를 열었다.¹²⁾ 이때의 만인소는 사도세자를 신원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나 정조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학서는 만인소를 올린 해 삼종조(三從祖) 임여재(臨汝齋) 류규(柳 奎, 1730~1808)에게서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주자서(朱子書)를 배웠다. 2년 뒤 32세 되던 1794년(정조 18, 갑인) “자전이 마침 오순에 오르고 자궁이 마침 육순에 올라 두 경사를 합하여 문무 정시를 시설하자(慈殿怡躋五旬, 慈宮怡躋六旬, 合二慶, 設文武庭試)”¹³⁾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 제5인으로 참방(參榜)했다. 종형 류상조도 이 정시문과에 합격했다. 그 후 학서는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가 되었으며, 4월에는 내각장제문신(內閣講製文臣)으로 초계(抄啓)되었다. 즉 갑인선(甲寅選)의 초계문신이 된 것이다. 그 4월에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에서 학서의 도문연(到門宴)이 있었는데, 모인 연안 이씨는 「쌍벽가(雙璧歌)」를 지었고,¹⁴⁾ 신체인(申體仁, 1731~1812)¹⁵⁾은 4언의 잠언 「서증류학사사언(書贈柳學士士鉉)」을 지어 기념했다.¹⁶⁾

학서는 규장각의 각종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 1797년(정조 21)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서백선(朱書百選)』, 『팔자백선(八字百選)』, 『사기영서(史記英選)』의 교정에 참가하였다.¹⁷⁾ 정조는 규장각 내 주자소(鑄字所)에 이 책들을 내려 어정(御定)의 구두(句讀)를 각신(閣臣)과 승지, 초계문신에게 교정을 보게 하였는데, 학서도 참여한 것이다. 또한 학서는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주자어류(朱子語類)』에 1769년(영조 45) 계방(桂坊) 찬정의 구두를 옮겨 적는 일에 참여하여, 『주자어류』 제26권의 안정복(安鼎福) 구두를 교정했다.¹⁸⁾ 학서는 초계문신으로 있으면서 정조로부터 『문신강제절목(文臣講製節目)』, 『태학은배시집(太學恩杯詩集)』, 『두율분운(杜律分韻)』, 『어정육주약선(御定陸奏約選)』,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 『어제환향책문(御製還餉策文)』 등을 하사받았다. 1799년(정조 23) 10월에는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이때 정조는 갑인선 초계문신을 대상으로 『대학(大學)』, 『주자대전(朱子大全)』, 『국조고사(國朝故事)』,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및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저본으로 초계문신이 경세(經世) 방안을 밝히면 정조 자신이 비답(批答)을 내리는 방식으로 ‘초계고식(抄啓故寔)’을 실시했다. 학서는 이해 10월 20일까지 매달 보름 전과 보름 후로 각각

懷, 有不忍言, 而以其不忍言, 而終不言, 則將何以明凶徒詬天之逆節, 解中外然疑之情乎? 臣請和淚泚筆, 冒死陳之. 昔在戊寅復講之學, 實爲群凶浸潤之階. 當聖壽倦勤之餘, 請十年已停之講者, 此魯禧諸賊網繆之計, 不在於勸聖學也明矣. 自是以後, 托講義而引喻者, 罔非媒孽之凶言也, 結粵援而交煽者, 皆是譖搆之凶謀.”

12) 당시 幼學이었던 학서는 「壬子疏廳日錄」을 저술했다. 이는 『蘭揮錄』(안동 국학연구원에 위탁)에 수록되어 있다.

13) 柳台佐의 『百世隕結錄』에는 ‘慈宮怡躋六旬’이 ‘慈宮怡躋七旬’으로 되어 있다.

14) 어머니 연안이씨는 가사 「쌍벽가」에서 두 사람의 동방급제를 축하하고 있다. 연안이씨는 〈쌍벽가〉에서 류이좌와 류상조를 ‘雙璧’이라 칭했다.

15) 梧峯 申之梯와 孤松 申弘望의 후손으로 산림에서 李象靖, 金樂行의 문인으로 활동했다. 시문 외에 聖賢들의 ‘敬’에 대한 요지를 편찬한 『崇敬錄』 2책이 남아 있다.

16) 申體仁, 「書贈柳學士士鉉」, 『晦屏集』. “柳氏子士鉉, 擢金榜來訪, 山居貧約, 無物相贈, 乃以四言詩八句爲箴語以勉之. 倘蒙留聽, 萬一有助. ‘上輔君德, 下濟生靈. 增光祖烈, 勿墜家聲. 學業宜富, 詞華何有. 聖君賢相, 庶終成就.’”

17) 『日省錄』 정조 21년 4월 4일(갑술).

18) 『日省錄』 정조 21년 5월 22일(신유).

50여조씩 강설을 지어 올려, 모두 500여 조항을 이루었다. 그 조항은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대학고식(大學故寔)』, 『주자대전고식(朱子大全故寔)』, 『국조고식(國朝故寔)』에 들어 있다. 이 ‘고식’은 홍문관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오늘날을 바로잡고 그것으로써 경계를 베풀던 전통과 시강원에서 의심나는 대목을 정해 그 시비를 질문하던 전통을 종합한 것이다.

1800년에 학서는 부여현령으로 나갔는데, 이때 정조의 승하 소식을 듣고 『백세운결록(百世隕結錄)』을 집필했다. 상중하 3책 가운데 상중 2책이 안동 국학연구원에 기탁되어 있다. 순조 초에 홍문관 부교리를 거쳐 북평사로 나갔다. 이듬해 성균관사성을 지내고, 1807년(순조 7) 안변부사가 되었다. 1810년 군자감정과 홍문관 교리를 지내고, 1820년 예조 참의, 1822년 동부승지, 1829년 부총관·우승지·호조참판 등을 역임했다.¹⁹⁾ 만년에는 주로 문중 선대분들이나 남인 학자, 영남인의 문집을 정리하고 간행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영남 지방의 학맥 계승에 공을 들였다.

학서는 초계문신으로 있으면서 갱화(賡和)와 응제(應製)를 통해 시문학의 세계를 확장했다. 하지만 문집 『학서집』에는 갱화와 응제의 문은 거의 없고 시 18편, 전(箋) 2편, 명(銘) 1편만 수습되어 있다. 본고는 학서가 남긴 갱화와 응제의 시를 통해 학서 시의 습숙도(習熟度), 온축의 농밀(濃密), 정론(政論)의 지향(指向)을 이해하고, 『학서집』에 갱화와 응제 시문이 일부밖에 수록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하기로 한다.

II. 학서의 갱제(賡載)

정조는 평소 류성룡의 『서애집(西厓集)』을 국가 경영에 참고했다.²⁰⁾ 그 때문에 류성룡의 8대손인 학서를 은고(恩顧)했다. 이미 1792년(정조 16) 정조는 류성룡이 이여송(李如松) 등 명나라 장수들과 주고받은 서간 2첩과 명나라 장수에게 받은 시화 1첩을 열람하고 서문을 작성한 일이 있다.²¹⁾ 학서는 1794년(정조 18, 갑인) 봄 문과정시에 합격하고 초계문신이 되어, 과강(課講)에서 『대학』의 ‘명명덕(明明德)’에 관한 어문(御問)에 답하여, “이발(已發)에 따라 밝은 것을 회복하라는 뜻”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²²⁾ 정조는 “명덕의 이발과

19) 학서의 가계와 본인의 행력에 대해서는 『학서집』 권19에 수록된, 학서가 伯父 柳宗春, 부친 柳師春, 외조부 李之億에 대해 작성한 생장, 권20 附錄에 수록된 李彙載가 지은 학서 행장, 둘째 아들 柳祈睦이 지은 家狀, 당형 류상조가 지은 묘지명, 李鍾祥이 지은 묘갈명, 1839년에 조정에서 내린 賜祭文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元周用, 『『학서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12; 김수현, 『鶴棲 柳台佐의 삶과 문학』, 『동양학』 6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6, 1~17쪽.

20) 정조는 수원성을 축조할 때 류성룡의 『山城說』(『서애집』 권15 잡저)을 참조했다. 『日省錄』, 정조 17년 12월 6일, “수원의 축성은 石城으로 하되 성의 제도는 중국의 법을 본뜨고 고故 相臣의 논의를 널리 상고하고 상세히 헤아려 거행하라고 명했다.”

21) 『弘齋全書』 卷55, 雜著2, 『題文忠公柳成龍家藏皇朝諸將書畫帖』. “皇朝諸將書畫帖二卷, 畫帖一卷, 與故相文忠公柳成龍, 往復贈遺者也. 其尺幅淋漓之間, 委曲情款, 渾無畦畛, 往往多勞人長者之風, 而至論戰守之機宜. ……夫身用於當時, 則帷幄之謀, 足以傾華人之心, 言垂於後世, 則擬議之略, 至今爲國家之利. 河山如故, 典刑無遠, 而流韻餘烈, 使人喟然而起九京之思者, 此豈日晷之論. 飛蓬之間, 所能致哉. 傳曰不厚其棟, 不能任重, 重莫如國, 棟莫如才, 儼故相之無愧色焉. 於乎希矣.”

22) 柳台佐, 『御考』, 화경당 소장. “臣對曰: 人之所得以生者, 有許多道理在裏. 其光明處, 乃所謂明德, 則明德者, 其惟本心之虛靈不昧者乎! 夫心者, 一身之主萬事之本, 兼理氣該體用盛時具備, 敷施發用之機, 都在於一箇方寸之間. 而最其本然之初, 全體之妙

이발을 발취했으니 기특하고 기특하다. 비로소 영남학자들의 실지에 힘쓴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²³⁾라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이 일은 『정조실록』에는 1796년(정조 20) 11월 28일(기사)에 나온다.²⁴⁾

학서는 문과정시에 합격하고 귀근하려고 정고(呈告)했는데, 정조는 『주서백선(朱書百選)』을 하사했다고 한다.²⁵⁾ 귀근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796년(정조 20, 병진) 겨울에 환조(還朝)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조실록』에 보면 1794년(정조 18) 8월 30일(갑신)에 “류문충 집안에 내려 보낼 것은 초계문신 柳台佐를 불러들여서 부쳐 보내라.”라는 어명이 있다.²⁶⁾ 또한 정약용이 1796년 8월 무렵 학서를 전별하면서 준 칠언율시가 있다. 1794년 12월에 귀근을 했고, 다시 1796년 8월에 귀근을 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약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안동으로 가는 류사현[이좌]을 작별하면서 주대[贈別柳士鉉【台佐】歸安東】²⁷⁾

연원²⁸⁾ 역로가 큰강 가로 나 있고

영남 나무들이 울창하게 옛 숲에 이어져 있네.

지위는 낮아도 높은 선비의 지절을 잊지 않고

오늘 세상 사람이면서 옛 대가의 마음을 홀로 품고 있다.

맑은 바람이 승문원 뜨락에 불자 해나무 잎 팔락이고

[승문원을 괴원(槐院)이라고 한다.]

간 밤 내린 비에 하회 독에는 버들빛이 짙으리라.

[류씨들이 대를 이어 하회에서 살고 있다.]

得於天，而虛靈不昧，粹然爲具衆理，而應萬事之一大本原。故先儒之說心也，以其得於天者名之，得於天之謂德也。舉其虛靈，而不昧者稱之，虛靈而不昧之謂明也。明德之在乎人，其所以盛貯，則性也。其全體之所在，則心也。其大用之流出，則情也。未發而爲此心光明之體，已發而爲此心光明之用。是以朱夫子之訓，以人所得於天，而虛靈不昧爲形容明德之第一義。而有曰虛靈不昧四字，說明德義已足。又曰明德者，心之表德。盧玉溪又從而釋之曰：‘明德，只是本心。虛者心之寂。靈者心之感。虛則明存於中，靈則明應於外，惟虛故具衆理，惟靈故應萬事。’即此觀之，則朱夫子訓釋章句之旨，與夫不曰性之表德，而必曰心之表德者，可從而推矣。後來明儒輩，必以心性二字對待發明於明德之說，而至有所謂心之明，即性之明等語。殆或近於鵲圖吞棗之病，而矛盾於朱夫子立言本意之所在也…(후략)…”

23) 柳台佐, 「御考」, 화경당 소장. 「批曰: 發揮明德之未發已發, 奇哉奇哉. 始信嶠南學者之實地著力.”

24) 정조는 “已發과 未發의 性을 드러내어 밝혔으니, 기특하고도 기특하다. 嶠南 학자들이 실질적인 문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초계 문신 柳台佐에게 鼠皮로 만든 耳掩 하나를 하사하라.”라는 기록도 있다.

25) 李鍾祥, 「鶴棲柳公墓碣銘 并序」, 『定軒先生文集』 卷16 墓碣銘. “癸卯參鄉解. 甲辰從父兄豐安君相祚擢謁聖科. 公亦被選. 以句語有雷同見拔, 上命都承旨選給試券, 特付初試. 後三日登庭試丙科, 卽命入侍, 教曰: ‘汝於西厓爲幾世孫?’ 對曰: ‘八世矣.’ 又教曰: ‘與柳相祚爲幾寸?’ 對曰: ‘四寸矣.’ 因問其外祖及妻族, 歷對訖, 玉色甚紆豫, 是日卽付假注書, 又參翰園. 與豐安君帶恩歸覲, 自上親製文賜祭于文忠公家廟. 是月選入抄啓文臣, 卽宣召還朝. 公記注瞻敏, 應對詳明, 每進呈所製文字, 特賜倍畫, 寵賚便蕃. 臘月呈告還鄉, 自上下『朱書百選』三冊, 教曰: ‘兩件藏置陶玉兩院, 一件爾其祇受.’ 公進往兩院, 依教宣命. 丙辰冬, 還朝. 上以明明德一句. 設問試諸臣, 公引中和說以對, 上深加歎曰: ‘能發揮得已發未發. 始信嶠南學者實地用功.’ 賜鼠皮耳掩一部. 時李公鼎揆, 適以知申入侍, 教曰: ‘卿知柳台佐乎?’ 對曰: ‘習知之矣.’ 上曰: ‘其人不但文學可嘉, 且其持身甚簡靜尤可.’ 時筵中方進講朱書, 間進『國朝寶鑑』. 公隨條陳說. 輒賜俞允. 酬酢如響, 詳在公『隕結錄』.”

26)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 8월 30일(甲申). “柳文忠家所下者, 招致抄啓文臣柳台佐付送.”

27) “柳는 당시 承文院正字였다.”라는 정약용의 주가 있다. 학서가 승문원 정자에 제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조실록』에 보면 정조 21년 정사(1797) 12월 19일(갑인), 주서(注書)에 曹錫中·洪奭周【鄭文始 천거】·尹命烈·具得魯【李埈 천거】·柳台佐【柳遠鳴 천거】가 천거되었는데, 조석중을 승정원 주서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28) 연원: 連原驛. 충주 북쪽 5리 거리에 있는 驛站.

현악기 타며 노래하는 전통이 동쪽 노나라에 남아 있기에²⁹⁾
백 년의 그 음향이 죄다 침몰하진 않았구나.

連原驛路大江潯，嶺樹蒼蒼接舊林。
卑位不忘高士節，今人獨抱故家心。
清風院落槐陰動，【承文院謂之槐院】
宿雨河堤柳色深。【柳世居河回】
爲有絃歌東魯在，百年遺響未全沈。

정조 연간의 강제문신 선발은 1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³⁰⁾ 신축(辛丑, 정조 5, 1781년)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선발 20명, 계묘(癸卯, 정조 7, 1783년)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선발 16명, 갑진(甲辰, 정조 8, 1784년) 영의정 서명선 선발 7명, 병오(丙午, 정조 10, 1786년)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선발 6명, 기유(己酉, 정조 13, 1789년)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선발 15명, 경술(庚戌, 정조 14, 1790년)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선발 19명, 임자(壬子, 정조 16, 1792년) 좌의정 채제공 선발 10명, 갑인(甲寅, 정조 18, 1794년) 홍낙성 선발 30명[특별가초(特別加抄) 8명 포함, 경신(庚申, 정조 24, 1800년) 이병모(李秉模) 선발 14명[특별가초 1명 포함] 등 138명이다. 학서는 갑인 선발이다. 학서가 초계문신으로서 응제와 과강을 함께 한 인물들은 같은 갑인 선발의 인사들 이외에, 그보다 앞선 기유년 선발, 경술년, 임자년 선발의 인사들이 있었다.

기유(정조 13, 1789년) 좌의정 이성원 선발 15명 : 서영보(徐榮輔), 정약용(丁若鏞), 심규로(沈奎魯), 서유문(徐有聞), 윤인기(尹寅基), 심능적(沈能迪), 심상규(沈象奎), 이내면(李來冕), 김희준(金羲淳), 이기경(李基慶), 박윤수(朴崙壽), 김이교(金履喬), 안정선(安廷善), 이내현(李來鉉), 유한우(兪漢萬)

경술(정조 14, 1790년) 좌의정 채제공 선발 19명 : 조득영(趙得永), 윤지눌(尹持訥), 김경(金憬), 최벽(崔璧), 신성모(申星模), 송지렴(宋知謙), 이희갑(李羲甲), 정노영(鄭魯榮), 김이재(金履載), 이명연(李明淵), 서유구(徐有渠), 박종순(朴鍾淳), 한용탁(韓用鐸), 엄기(嚴耆), 정약전(丁若銓), 김달순(金達淳), 홍수만(洪秀晩), 윤행직(尹行直), 박종경(朴宗京)

임자(정조 16, 1792년) 좌의정 채제공 선발 10명 : 이조원(李肇源), 김희화(金熙華), 이홍달(李弘達) [이위달(李渭達)], 남공철(南公轍), 한기유(韓耆裕), 이운항(李運恒), 권의(權倚), 임경진(林景鎭), 심반(沈鑾), 민치재(閔致載)

29) 현가가 동쪽 노나라에 남아 있으니: 원문의 '東魯'는 중국 동쪽에 자리한 루나라 지역을 이른다. 秦나라 말기에 漢나라 沛公이 項羽를 격파하고 楚나라 땅을 평정하였는데, 노나라 지역만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패공이 그 지역을 도륙하고자 하였는데, 그 성 아래에 이르자 현악기를 타고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듣고 패공은 "禮義를 지키는 나라가 군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충절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고는, 항우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보여 주고 도륙함 없이 노나라 지역의 항복을 받아 내었다. 『漢書』 「高帝紀」에 나온다.

30) 『抄啓文臣題名錄』에는 1846년(헌종 12) 權敦仁 주관, 金翊淵 등 20명 선발, 1848년 鄭元容 주관, 金翊鏞 등 36명 선발의 명단이 더 있다. 또한 제1회 1781년의 첫 번째 초계문신에 선발된 20명 중에서 鄭東浚·吳泰賢·趙興鎭·金熙采 4명은 누락시켰다. 따라서 제명록에 의하면 초계문신은 총 194명이다.

갑인년 초계문신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갑인년 초계문신 명단

선발년도 /선발자	성명	생몰년	본관	자/호	문집	기타
甲寅 (1794, 正祖18) / 洪樂性 選拔 30명 (특별가초 포함)	崔光泰	1744~	全州	士龍/		崔寔 증손
	吳泰曾	1754~	海州	伯紹/		한양 거주
	金近淳	1772~	安東	汝仁/十靑·歸淵		
	權 峻	1758~	安東	陽仲		한양 거주
	李存秀	1772~1829	延安	性老/金石·蓮游		
	趙萬元	1762~1822	豐壤	泰始/		趙持謙 6세손
	徐俊輔	1770~1856	大丘	穉秀/竹坡		徐有防 아들
	曹錫中					
	李晩昇					
	柳台佐	1763~1837	豐山	士鉉/鶴棲	『鶴棲集』	
	洪樂浚	1761~	豐山	仲深/		
	柳遠鳴	1760~1831	晉州	振玉/蒼巢		안산 출신. 어머니 淸州韓氏는 韓德龍 (申光洙 손녀사위)의 딸
	金熙洛	1761~1803	義城	淑明/故寔軒		李象靖 문인
	尹致永	1764~	海平	季文/		尹長烈 아들
	具得魯	1772~	綾城	景興/		具庠 손자, 具悌元 아들
	宋冕載	1764~	礪山	周卿/		宋翼庠 아들
	申 絢	1764~1827	平山	受之/實齋		申大羽 아들, 申綽 아우
	鄭取善					
	姜浚欽	1768~1833	晉州	百源/三溟	『三溟詩集』	
	洪命周	1770~	豐山	自天/孝貞		
甲寅 特敎加抄1	黃基天	1760~1821	昌原	羲圖/菱山·后皖		생부 黃仁照, 부 黃仁煥
	李東萬					
	申鳳朝	1745~	平山	子岡/		申師顯 아들
	金熙周	1760~1830	義城	公穆→聖思/葛川	『葛川集』	乃城 望道里 출생. 權思敏·李象靖 문인
	金處嚴	1755~	安山			
	李英發 (義發)	1768~1850	永川	又文/雲谷	『雲谷集』	
甲寅 特敎加抄2	洪奭周	1774~1842	豐山	成伯/淵泉	『淵泉集』	洪樂性 손자
	金履永 (履陽)	1755~1845	安東	命汝		金憲行 아들
	金啓溫	1773~1825		/寤軒	『寤軒私稿』	
甲寅 特敎加抄3	李象謙					

그런데 『학서집』은 학서가 초계문신으로서 갱화하거나 응제한 시문들을 충실하게 전하지 않는다. 갑인 선발에 가초(加抄)된 이희발(李羲發, 1768~1850)³¹⁾의 문집 『운곡집(雲谷集)』이 갱화와 응제의 시문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하는 것과는 대조가 된다. 이희발은 1795년(정조 19) 3월 식년시에 병과(丙科)로 합격하고, 4월에 갑인 선발의 초계문신에 특교가초(特敎加抄)되었다. 이희발은 학서와 만년에 이르도록 교분이 깊기도 했다. 1836년(헌종 2) 9월에 학서가 류규의 『임여재고』를 교정 볼 때 이희발도 참여했다.

학서와 이희발을 초계문신 활동 사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학서와 이희발의 초계문신 경력 대조

연도	鶴棲 柳台佐	李羲發
정조 18년(갑인, 1794)	봄, 庭試에 丙科로 합격하고, 事變假注書가 되었으며, 抄啓文臣에 선발되었다.	
	12월, 呈告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朱書百選』을 하사받았다.	
정조 19년(을묘, 1795)		3월, 28세로 式年試 丙科에 합격하다.
		4월, 抄啓文臣이 되다.
정조 20년(병진, 1796)	34세 되던 겨울, 還朝했다. 『大學問對』를 지었다.	
정조 21년(정사, 1797)	假注書가 되었다.	30세, 왕명으로 故寔을 지어 올리다.
	이해 『中庸講義條對』를 지었다.	明陵 別檢이 되다.
정조 22년(무오, 1798)	7월, 36세로 注書가 되었다.	31세, 孝陵 別檢이 되다.
	10월, 掌隸院의 醺酒 사건 때문에 通津에 유배되었다가 19일 만에 還職되었다.	「中庸」에 관한 御製條問에 應對하다.
정조 23년(기미, 1799)	10월, 正言이 되었다.	12월, 32세로 親試에서 연이어 3차례 장원을 하여, 特命으로 陞六되고 전직, 감찰이 되다.
	이해 『大學故寔』, 『朱子大全故寔』, 『國朝故寔』을 지었다.	
정조 24년(경신, 1800)	정조 24년(경신, 1800) 2월, 지평이 되고, 3월, 扶餘 縣監이 되었다.	봄, 33세, 휴가를 얻어 낙향하다.
	6월, 정조가 승하하자 동료 초계문신들과 哭班에 나아갔다. 이해 『百世隕結錄』을 엮었다.	6월, 정조가 승하하자 哭班에 나아가다.

31) 본관은 永川. 자는 又文, 초명은 英發, 호는 雲谷. 할아버지는 李德枋, 아버지는 李宜明, 어머니는 파평 윤씨 尹德殷의 딸이고, 부인은 진성 이씨 李龜洛의 딸이다. 16세기 이래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에 세거했다. 1797년 明陵 別檢, 이듬해 孝陵 別檢을 지냈다. 1805년(순조 5) 예조 좌랑, 병조 정랑 등을 지냈다. 1815년 사간원 사간이 되고, 1816년 寧海 府使로 나아갔다가 돌아와 1819년 사간, 집의를 지냈다. 1822년 세자시강원 필선을 지낸 뒤, 이듬해 모친상을 치렀다. 1826년(순조 26) 寧越 府使로 나아갔다가 1830년 동부승지, 1833년 대사간이 되었다. 1843년(헌종 9) 정조 때 法從으로 抄啓된 사람으로 加資되고, 1847년(헌종 13) 병조 참판을 거쳐, 1849년 형조 판서가 되었으나 노병으로 사직했다. 문집 『운곡집』 21권 11책은 1899년 후손들이 간행했다.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에 있다.

학서는 정조와 근신들의 연구(聯句)에 참석했으나, 『학서집』에는 언급이 없다. 『홍재전서』를 보면 적어도 다음 두 연구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 『홍재전서(弘齋全書)』 제6권 시(詩) 2 「영흥(永興)의 본궁(本宮)에 올려 향사하는 날에 연구(聯句)를 짓다 소서를 아울러 쓰다」
- ㉡ 『홍재전서』 제7권 시(詩) 3 「규장각(奎章閣), 은대(銀臺), 옥서(玉署)에 음식을 내리고 연구(聯句)를 짓다 소서(小序)를 아울러 쓰다」

그리고 학서의 갹재 기록을 이희발의 그것과 대조하면 학서의 갹재가 문집에 상당수 누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정조의 갹재 요구와 학서, 이희발의 현전 갹재

연도	『弘齋全書』 권6·권7과 賡載錄	柳台佐『鶴棲集』 권1	李義發『雲谷集』 권1	
정조 18년 (갑인, 1794)			奉敎製進, 太學恩杯詩, 見恩盃詩集	7언 20운 40구, 수구입운. 환운
	御製序曰: “每歲三餘之工, 輒課一帙之書, 機務雖繁, 莫或間曠. 近來經史子集之有選, 選必開印. 盖爲嘉惠於來許, 兼欲資益於自強. 用是孜孜, 不知爲疲. 乃命銀臺玉署諸臣與豹直騎省, 考校經書句讀, 俾宿禁中, 亦既勞止. 際此奎選講製, 兼夜責程, 而宮雪開花, 座燭分蓮, 傲煖爐會故事, 紫衣擎傳, 滿架般醪, 帶以聯韻詩句.”	“極知眇末歸陶鑄. 肯忽斯須勉敬莊.” [臣台佐; 『학서집』未收]	奎閣銀臺玉署宣饌聯句	7언 2구
정조 19 (을묘, 1795) 6월 18일	見『賡載錄』. 御製小序曰: “慈宮周甲日, 奉觴上壽, 恭述志喜之誠, 與宴諸賓.”		慈宮周甲, 志喜詩賡進.	5언율시
정조 19 (을묘, 1795) 6월 18일	「洛南軒行養老宴, 七十者暨六十一歲者與焉. 拜用一坐再至之禮, 羣老將就位. 予爲羣老興, 既升堂, 酒行三遍, 唵示羣老求和」		華城洛南軒, 御題養老詩賡進	칠언절구
정조 20 (병진, 1796) 2월	「春仲朔日, 頒公卿近臣尺, 修中和節故事, 帶詩以寵之」 御製小序曰: “春仲朔日, 頒公卿近臣尺修中和節故事. 帶詩以寵之.”	賡進御製中和尺韻	中和尺詩賡進, 敬受頒尺承命製進	오언율시
3월 3일	「皇壇親享日, 敬次兩朝御製韻」	賡進皇壇親享, 次兩朝御製韻	皇壇親祭詩賡進	칠언율시

연도	『弘齋全書』 권6·권7과 賡載錄	柳台佐『鶴棲集』 권1	李義發『雲谷集』 권1	
			皇壇御製詩賡進	칠언율시
정조 21 (정사, 1797) 6월 18일	「迎春軒奉觴志喜, 用洛南前韻」	「賡進御製迎春軒奉觴志喜, 用洛南軒前韻」	又志喜詩賡進	오언율시
정조 23 (기미, 1799) 7월 21일	「謹題敬奉閣 并小序」	「賡進敬奉閣御製韻, 閣奉皇明詔勅」		
	「將拜獻陵, 曉次舟橋, 步戊子前韻, 以志感懷, 二首」	「賡進獻陵顯隆園行幸時, 曉次舟橋, 步戊子前韻, 以志感懷韻」		
		又賡進七律		
중추	「敬題獻陵齋室 并小序」	「賡進親祭獻陵, 還次果川縣御製韻」		
12월	「春秋完讀日, 慈宮設饌識喜, 吟示諸臣, 并小序」	「賡進完讀一帙, 獻祝慈宮御製韻」		

이희발은 성균관 유생으로 있으면서 갱화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학서는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갱화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초계문신으로서 학서와 이희발은 1795년부터 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만, 정조 초부터 당시까지 이미 갱화의 일이 많아서, 여러 종류의 갱재축이 사본이나 인본의 형태로 이미 전해오고 있었다.

신축(정조 5, 1781년) : 소요정갱재축(逍遙亭賡載軸) 사본, 보감찬집갱재축(寶鑑纂輯廳賡載軸) 간본, 매각갱재축(梅閣賡載軸) 사본, 남전재소갱재축(南殿齋宵賡載軸) 간본.

계묘(정조 7, 1783년) : 옥류천갱재축(玉流川賡載軸) 사본, 연사갱재축(燕射賡載軸) 간본, 망묘루재소갱재축(望廟樓齋宵賡載軸) 간본

갑진(정조 8, 1784년) : 영릉연로갱재축(永陵輦路賡載軸) 간본, 덕수천연운축(德水川聯韻軸) 간본, 진전전알일갱재축(眞殿展謁日賡載軸) 간본, 성정각야대연운축(誠正閣夜對聯韻軸) 간본, 원자궁상견례일공도성의연운지경(元子宮相見禮日恭親盛儀聯韻志慶) 탁본.

을사(정조 9, 1785년) : 내원관폭갱재축(內苑觀瀑賡載軸) 사본, 책례일연구병(冊禮日聯句屏) 인본(印本).

정미(정조 11, 1787년) : 고양군행전갱재축(高陽郡行殿賡載軸) 간본, 고령리기임각갱재축(高嶺里祈稔閣賡載軸) 간본(앞의 것과 합본)

무신(정조 12, 1788년) : 내원상화갱재축(內苑賞花賡載軸) 간본

경술(정조 14, 1790년) : 9월 29일 태학지경시(太學志慶詩) 1책[1790년 혹은 1791년 간행 활자본].

신해(정조 15, 1791년) : 세심대쟁재축(洗心臺賡載軸) 간본

임자(정조 16, 1792년) : 내원상화쟁재축(內苑賞花賡載軸) 간본, 경림연연운축(瓊林譚聯韻軸) 간본, 광릉행행일연운축(光陵行幸日聯韻軸) 간본, 식당일연운축(食堂日聯韻軸) 간본, 설중옹호회연운축(雪中龍虎會聯韻軸) 간본(앞의 것과 합본), 세심대쟁재축(洗心臺賡載軸) 간본

계축(정조 17, 1793년) : 내원상화쟁재축(內苑賞花賡載軸) 간본, 이제독유제일쟁재축(李提督侑祭日賡載軸) 간본, 원릉전성일연운축(元陵展省日聯韻軸) 간본, 규선문신제사일연운축(奎選文臣製射日聯韻軸) 간본, 기사쟁재축(耆社賡載軸) 간본.

1795년 이후의 쟁재축에도 이희발의 이름이 빠져 있는 예가 많다. 학서의 경우는 1795년 초계문신이 된 직후 쟁재에 참여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976년 이후의 쟁재에 참여한 기록은 다소 남아 있다. 참고로 1794년부터 1800년까지의 쟁재축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정조연간 1794년~1800년 賡載의 사실과 賡載軸

	연도	御製 혹은 聯句	賡載	
人瑞錄獻御日聯韻軸 간본	갑인(1794, 정조 18)	『정조실록』 18년 9월 24일.	古體 : 기구신 17인의 자손 84인. 근체 : 시위신 22인	1795 활자 1794 洪樂性 등 125인 『人瑞錄』 진상 聯句(七言)
內苑賞花賡載軸 간본	갑인(1794, 정조 18)	宙舍樓에서 御眞을 奉審하고 芙蓉亭에 노닐고, 五言과 七言 근체시 각 1편씩을 지음(『홍재전서』 권6).	領相 洪樂性 참여 허락. 쟁재 54인	2책 1795 활자 1794 洪樂性 등 99인 內苑賞花 五言律詩 100
洗心臺賡載軸 간본	갑인	同자를 뽑아 칠언절구를 지었다.	쟁재 30인	2책 1795 활자 1794 鄭民始 등 30인 洗心臺 행차 七言絶句 31
桓廟八回甲志慶聯韻軸 간본	을묘(1795, 정조 19) 봄	『홍재전서』 권6.	참여 신하 29인/ 참여 89인	1795 활자 1795 洪樂性 등 29인 桓祖 誕辰八周甲 聯句(七言)
華城奉壽堂進饌賡載軸 간본	을묘	景慕宮 舊甲, 慈宮 周甲의 해, 윤2월 자궁을 모시고 園寢에 참배하고 윤2월 13일 華城 奉壽堂에서 進饌하면서 七言四韻律 1수를 지었다(『홍재전서』 권6).	쟁재 外賓 70인, 諸臣 77인.	3책 1795 활자 1795 洪駿漢 등 147인 奉壽堂 進饌 樂章, 七律 149
洛南軒養老賡載軸 간본	위와 같음	다음 날 洛南軒 養老宴에서 七言絶句 신하들에게 보였다(『홍재전서』 권6).	쟁재 노인 10인, 宴席참여 신하 19인	3책 1795 활자 1795 洪樂性 등 29인 洛南軒 養老宴 七言絶句 30인.
將臺閱武賡載軸 간본(위 2축과 합본)	위와 같음	밤에 西將臺에서 城操와 夜操를 행하고 五言四韻律 1수를 門楣에 썼다(『홍재전서』 권6).	쟁재 34인	3책 1795 활자 1795 洪樂性 등 34인 華城將臺 閱武 五言律詩 35

	연도	御製 혹은 聯句	賡載	
洗心臺賡載軸 간본	을묘, 3월 7일	3월 7일 長樂宮에 獻壽하고 돌아오다가 세심대에서 을묘년(1735) 靈城君 朴文秀의 詩韻을 따라 七言小詩를 지어 신하들에게 갱화하도록 했다(『홍재전서』 권6. 『내각일력』).	갱재 55인	2책 1795 활자 1795 鄭民始 등 55인 洗心臺 행차 七言絶句 56.
內苑賞花賡載軸 간본	을묘, 3월 20일	내원상화 인원을 중형제와 재종형제까지 확대, 『整理儀軌』 편찬 문신과 內閣 속관도 참여. 臺자를 뽑아 칠언절구(『홍재전서』 권6).	98명 참여	2책 1795 활자 1795 洪樂性 등 98인 內苑賞花 七言絶句 99
慈宮周甲誕辰賡載軸 간본	을묘, 6월 18일	慈宮의 주갑 생신에 明政殿에서 致詞와 箋, 文과 表裏를 드리고 延禧堂으로 돌아와 술잔을 올려 獻壽했으며, 정오에 晝饌을 올렸다. 壯勇營으로 하여금 관현악을 연주하게 하고 五言律詩 1수를 지었다(『홍재전서』 권6).	갱재 外賓 128인, 諸臣 178인	3책 1795 활자 1795 洪駿漢 등 306인 惠慶宮 周甲 樂章, 五律 308
遲遲臺賡載軸 사본	병진(1796, 정조 20) 정월	현릉을 참배하고 돌아올 때 화성 彌勒峴 遲遲臺에서 을시 1수를 짓고, 수행 신하들에게 화답하도록 했다. 궁 지키던 신하들과 환영 나온 백관과 화성 행궁에 나무 심으러 온 여덟 고을 수령들도 뒤에 갱재하게 했다(『정조실록』 20년 1월 24일 기사).	갱재 460인	
綾恩君宣麻日賡載軸 사본	병진, 봄	綾恩君 具允明이 三字銜을 청하자, 4대가 한 조정에서 벼슬하고 90세로 致仕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여 허락하고 조서를 내리고 시 한 수를 지어 그 일을 적었다(『홍재전서』 권7).	갱재 61인	
頒尺賡載軸 사본	병진, 중춘 초하루	中和節 裁度 고사를 따라 公卿과 近臣에게 자[尺]를 내려 주고, 시를 지어 은총의 뜻을 표했다.	갱재 214인	학서 참여
木屐銘賡載軸 사본	병진, 봄	內苑에서 활을 쏘고 李晚秀에게 古風을 바치게 하고 나막신 한 벌을 내리고 몇 구를 지어 주었다. 출근한 관료들은 이 詩韻을 따라 시를 지었다(『홍재전서』 권7).	갱재 15인	
皇壇親享日賡載軸 사본 2권	병진, 3월 2일	大報壇 大享을 親行하기 전날 재계하면서 현판에 걸린 숙종·영조(영조)의 시를 차운해서 칠언 근체시 1수를 짓고 신하들에게 갱재하도록 했다(『홍재전서』 권7).	享官 43인, 皇朝人 후손 83인, 충신과 양신 자손 799인, 대신·각신·시위 및 친구 초계문신 113인	학서 참여
種薑銘賡載軸 사본	병진, 봄	고사를 따라 內苑에 생강을 심어 근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贈銘詩 1편을 썼다.	갱재 11인	
恩重偈賡載軸 사본	병진, 봄	『大報父母恩重經』의 偈語를 열람하고, 선달 그믐날과 단오에 이 계를 인쇄하여 門楣에 붙이게 함(『홍재전서』 권56).	갱재 14인	

	연도	御製 혹은 聯句	賡載	
迎春軒志喜 賡載軸 사본	병진, 6월	6월 18일 慈宮 생신에迎春軒에서 헌수하고, 洛南軒 시를 차운.	外賓 41명	학서 참여
幸院賡載軸 사본	병진, 9월	옹주가 천연두를 앓자, 숙모 고사를 따라 도총부로 옮겨고자 해서, 원자와 함께 이전의 도총부였던 내각 이문원으로 옮겨 열흘간 각신들과 史書를 교정했다. 주자 詩에 차운했다.	쟁재 40인	
祈穀親享日 賡載軸 사본	무오(1798, 정조 22) 정월	社壇 祈穀大享 저녁에 韓愈가 신묘년에 지은 雪 詩에 차운하여 풍년 기원을 담고, 시종 신하들에게 쟁재하도록 했다.	쟁재 70명.	
皇壇感懷賡 載軸 사본	무오, 봄	3월 19일 대보단 奉室에 참배하고, 遼東伯 金應河의 深河 전투 참전 180년을 기념해서 사손 金宅基에게 벼슬을 내리고 절구 1수를 鐵原 褒忠祠에 걸게 했다(『홍재전서』 권7).	쟁재 192명. 최종적으로 1057인.	祭官 43인, 증 寧遠伯 忠烈公 李如松의 후손 3인 등 명 군사 후손들, 忠亮人 후손들, 승지·사관·각신 이하의 신하 113인, 이상 1057인이 화답./ 학서 참여
敬陵行幸日 聯韻軸 사본	무오, 가을	敬陵에 참배하고, 경릉의 다섯 번째 회갑 날을 추억해서 桓廟가 여덟 번째 맞았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던 聯韻詩 운을 따라 隨駕 신하들과 함께 시를 지었다(『홍재전서』 권7).	쟁재 29명.	
輦過壯義洞 賡載軸 사본	무오, 겨울	毓祥宮과 宣禧宮 배알 후 눈 때문에 세심대에 들르지 못하는 마음을 시 1수로 드러냈다(『홍재전서』 권7).	쟁재 106명.	
手圈賡載軸 사본	무오, 겨울	『三禮手圈』·『兩京手圈』·『五子手圈』·『八家手圈』·『陸稿手圈』을 완성하고 칠언십운배울을 지어 校正·繕寫의 신하들에게 쟁화하게 했다(『홍재전서』 권7).	쟁재 29명.	
太學恩杯詩 集 12월 12일	무오	張志憲 등 282인이 정조가 태학에 銀杯를 하사한 일을 송축 四言. 317수.		활자본 5권 2책, 1799년 간행.
敬奉閣賡載 軸 사본	기미(1799, 정조 23)	7월 21일 황단 참배 후 양길 槐院에 있던 敬奉閣明나라詔勅과 御筆·御畫를 봉안하는 건각을 황단 서쪽으로 옮겨 짓고 근체시 1수를 짓고 신하들에게 쟁재하게 했다(『홍재전서』 권7).	쟁재 147명.	학서 참여
獻陵行幸日 賡載軸 사본	기미, 가을	獻陵 참배 길에 舟橋 막사에서 시를 지었다. 무자년(1768, 영조44) 봄 선왕을 모시고 참배한 일을 추억하면서 재실 벽의 詩韻을 따라 시를 짓고 신하들에게 쟁재하게 했다.	쟁재 81명.	학서 참여
春秋完讀日 賡載軸 사본	기미, 12월 8일	新印『春秋經傳集解』를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완독하고, 자궁의 책꽂이(冊架)를 받았다. 시를 짓고 신하들에게 화답하게 했다(『홍재전서』 권7).	쟁재 22명.	학서 참여

	연도	御製 혹은 聯句	賡載	
社壇祈穀日 賡載軸 사본	경신(1800, 정조 24) 정월	社壇에 祈年祭를 지내고 8일(辛日)의 穀日에 瑞雪이 내리자 당나라 柳應芳의 「人日詩」에 화답 시를 지었다(『홍재전서』 권7).	갱재 23명.	
北苑齋日賡 載軸 사본	경신, 3월	壇享 하루 전 北苑에 재속하면서 『后山集』 시를 골라 내각·은대 신하들에게 화답하게 했다(『홍재전서』 권7).	갱재 6명.	

정조는 신하들에게 정치 이념을 주지시키고 충정을 고무시키기 위해 어제시를 반사하고 갱화를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 학서의 갱화는 초계문신으로 있던 1796년(병진, 정조 20) 2월에 작성한 오언율시 「갱진어제중 화칙운(賡進御製中和尺韻)」 1수 이하 8수에 이른다.

정조는 2월 1일의 중화절³²⁾에 옛 고사에 따라 정조가 여러 신하들에게 자³³⁾를 하사하고 어제시를 함께 내렸다. 상평성 제2冬の重, 鍾, 容, 龍을 운자로 사용했다. 정조의 이 날 어제시에 갱화한 신하들은 모두 214인에 달하여, 제제공도 갱운을 남겼다.³⁴⁾ 2월 6일에 정약용도 「상감께서 중화칙을 하사하시면서 서간 대신 곁들여 보내신 시³⁵⁾에 갱화하대(賡和內賜中和尺箋簡御詩韻)」 시를 남겼다.³⁶⁾

정조 어제(御製)

중화절에 자를 반사할 제

붉은 찰흙³⁷⁾으로 봉하여 구중궁궐에서 내려오네.

중심 향하는 별들은 북극성을 의지하고³⁸⁾

32) 당나라 德宗 貞元 5년(789) 李泌의 건의에 따라 정월 그믐날을 명절로 삼아 오던 관례를 폐지하고, 2월 초하루를 명일로 정하고 중화절이라 하여 상사절·중양절과 함께 三令節로 삼았다. 이날에 덕종은 대신과 戚里에게는 자를 하사했는데 이를 裁度라 했다. 민간에서는 푸른 주머니에 백곡과 오이·과일의 씨를 담아 서로 선물했는데 이를 獻生子라 했다. 백관은 農書를 바쳐 근분을 힘쓰도록 했다. 『舊唐書』 卷13 本紀13 德宗本紀下 貞元5年.

33) 본디 중국 조정에서 중화절인 음력 2월 초하룻날 천자가 대신과 외척들에게 내려주었던 자이다. 중화절은 본디 정월 그믐날이었는데 당 나라 德宗 때 재상 李泌의 건의에 따라 2월 초하루로 정해졌다. 이날 민간에서는 푸른 주머니에 오곡백과의 종자를 담아 서로 주고받았고 농촌에서는 宜春酒를 빚어 句芒神에 제사를 지내 풍년을 기원했으며 백관은 천자에게 農書를 바쳤다. 『구당서』 「李泌傳」에 나온다.

34) 蔡濟恭, 「奉旨敬和內頒中和尺御製韻」, 『樊巖集』 卷1 詩○ 賡和錄.

35) 『홍재전서』 권7에 「仲春 초하룻날에 公卿과 近臣들에게 재(尺)를 頒賜하여 中和節의 故事를 다시 행하고, 시를 지어 은총을 내리대(春仲朔日, 頒公卿近臣尺, 修中和節故事, 帶詩以寵之)」라는 제목으로 정조의 어제시가 실려 있다.

36) 1795년(정조 19년) 5월 중국인 신부 周文謨의 잡입이 발각된 이후 남인들에 대한 노론 벽파와 남인 벽파의 공격이 거세지는 속에, 정약용은 7월 26일 지방으로 내보내 금정도 찰방에 보임한다는 임금의 엄중한 분부를 받고 임지로 떠났다. 12월 20일의 都目政事에서 정약용은 좋은 점수를 받아 龍驤衛副司直에 單付되고, 內移의 명이 내려졌다. 12월 22일에 정약용은 내이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에 금정역을 떠나 12월 25일 밤에 明禮坊 竹欄書屋에 이르렀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금정에서 서학의 무리를 금압한 공로를 보고하라고 했으나 정약용은 이를 거부하여 정조의 노여움을 샀고, 이후 한동안 관직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37) 붉은 찰흙: 원문은 ‘紅泥’로, 漢 나라 때 황제가 내리는 조서는 붉은 찰흙으로 봉한 것을 말한다. 왕이 글을 내려거나 물건을 내릴 때 봉함의 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38) 못별은……의지했고: 『논어』 「위정」편에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못 별들이 그 쪽

열 개 모은 기장³⁹⁾은 황종⁴⁰⁾ 읍관에 들어맞네.

한나라 황제가 삼척 검을 잡은 날⁴¹⁾

진룡 군이 일백 척 누대에 누운 자태.⁴²⁾

그대들이 오색 실을 마름질하여

산 무늬 용 무늬를 기워주게나.⁴³⁾

頒尺中和節，紅泥下九重。拱星依紫極，綵黍叶黃鍾。

漢帝提三尺，陳君臥百容。裁來五色線，許爾補山龍。

정약용의 경화(병진년 2월 6일)⁴⁴⁾

아름다운 절기 중화절을 맞아

붉은 상아 찌에 비단 보로 싼 자.

별 무늬는 옥 판에 줄지어 있고

규장의 어제시⁴⁵⁾는 큰 종이 올리는 듯.

털끝만한 보답도 하지 못하고

되려 큰 도량의 포용을 입었구나.

봉지⁴⁶⁾에서 재상들 따라 붓에 먹을 묻히자니

치졸한 시라 못 현신⁴⁷⁾들에게 부끄러워라.

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爲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라고 한 말에서 가져왔다. 또한 잣대의 눈금을 성(星)이라고 하므로, 여기서는 잣대의 작은 눈금들이 큰 눈금을 기준으로 삼아 질서 있게 놓여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했다.

39) 열 개 모은 기장 : 원문은 ‘綵黍(유서)’이다. 유는 기장 낱알 10개의 무게이고 서는 기장 낱알 1개의 무게이다. 즉, 기장 10개의 무게를 1수라 하고 10유가 1수, 24수가 1兩, 16兩이 1斤이다.

40) 황종 : 옛 음악에서 12律 가운데 하나로, 소리가 가장 크고 웅장하다. 길이의 단위를 정할 때 황종 길이의 90분의 1을 1分으로, 10분을 1寸으로, 10촌을 1尺으로, 10척을 1丈으로, 10장을 1引으로 한다고 한다. 『한서』 『律曆志』에 나온다.

41) 삼척검을 잡은 날 : 원문은 ‘提三尺’이다. 옛날에는 검의 길이가 거의 대부분 석 자였기 때문에 三尺劍이라 했다. 漢 나라 高祖 劉邦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나는 포의 신분으로 일어나서 석 자 검을 손에 쥐고 천하를 취했으니, 이것이 천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吾以布衣提三尺劍取天下，此非天命乎?]”라고 했다. 『사기』 『고조본기』에 나온다.

42) 진룡 군이 일백 척 누대에 누운 자태 : 진룡 군은 삼국 시대 魏나라 陳登을 말한다, 그의 자는 元龍이어서 陳元龍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許汜가 일찍이 劉備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기가 전에 진등을 찾아갔더니, 진등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높은 와상에 올라가 놓고 손님인 자기는 아래 와상에 눕게 하더라고 했다. 이에 유비가 말하기를 “나 같았으면 백척루 위로 올라가 놓고, 그대는 땅바닥에 눕게 했을 것이니, 어찌 위아래의 와상 차이일 뿐이겠는가? [如小人，欲臥百尺樓上，臥君於地，何但上下牀之間耶?]”라고 했다고 한다. 『삼국지』 魏書 『陳登傳』에 나온다.

43) 그대들이……기워주게나 : 산 무늬와 용 무늬는 왕이 입는 곤룡포에 수놓는 것들이다. 『서경』 『虞書·益稷』에 보면 舜 임금 이禹에게 이르길, “내가 옛사람의 象을 관찰하여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용과 뿔을 무늬로 만들고, 宗彝와 마름과 불과 흰새와 보와 불을 수놓아서 다섯 가지 채색으로 다섯 가지 비단에 선명하게 베풀어 옷을 만들고자 하노니, 네가 밝히라[予欲觀古人之象，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宗彝藻火粉米黼黻，絺繡，以五采彰施于五色，作服，汝明。]”라고 한 데서 가져온 말이다. 곧, 그대들에게 자를 내려주니 그것으로 비단을 마름질하여 내가 입는 곤룡포에 수를 놓아달라는 말로, 신하들에게 자신을 잘 보좌해달라고 부탁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44) 丁若鏞, 『廣和內賜中和尺兼簡御詩韻』, 『與猶堂全書』 詩集 卷2.

45) 규장의 어제시 : 원문은 ‘奎韻’이다. ‘奎章의 韻’이란 말인데, ‘규장’은 제왕의 시문과 글씨 등을 가리키고 ‘운’은 시를 가리킨다.

46) 鳳池 : 唐나라의 中書省에 있던 鳳凰池를 말한다. 흔히 중서성의 별칭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승정원을 가리킨다.

47) 못 현신들 : 원문은 ‘群龍’인데, 못 賢臣들을 비유한다. 『후한서』 『郎顗傳』에 “요 임금이 제위에 있자 여러 용들이 쓰였고,

令節中和節，紅牙錦帕重。星文羅玉版，奎韻發洪鍾。
未有纖毫報，偏蒙大度容。鳳池隨染翰，燕拙愧群龍。

학서의 갱화

금니로 봉한 휘황한 옥척이
오운 겹겹 쌓인 곳에서 내려왔도다.
중화의 절기에 화합하여
기장 알로 종을 조율하는 일에 참여하네.
신체는 법도로 삼아 가지런히 하고
품물은 장단을 재어 용납하네.
군은에 한 푼 한 치도 보답하지 못하면서
갱재하여 육률을 칭송하노라.

金泥煌玉尺，降自五雲重。化協中和節，功參子黍鍾。
齊平身作度，長短物成容。分寸臣無報，賡歌頌六龍。

1796년 2월에 정조는 재제공이 현릉원에 배종하여 지은 시 네 편을 골라 화운하고 정약용에게 그 가운데 한 수에 갱화하도록 명했다. 그후 1월 21일 지지대에서 지은 어제에 갱화하도록 정약용에게 명했으므로, 정약용은 또 갱화했다. 학서는 갱화의 명을 받지 않은 듯하다. 중춘 그믐에 정조는 신하들에게 생강을 하사하고 어제 1장 6구를 반사한 후 신하들에게 갱재하게 했으나,⁴⁸⁾ 학서는 갱화를 남기지 않았다.

1796년 3월 3일에 정조는 대보단(大報壇)⁴⁹⁾에 친림하여 숙종의 시와 함께 「친향대보단(親享大報壇)」시를 신하들에 보이고 갱화를 요구했다.⁵⁰⁾ 숙종은 재위 31년(1705) 3월 9일(계묘)에 대보단에 나아가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하고 어제를 승정원에 내려 승정원·홍문관·예문관의 신하들에게 갱화하게 한 일이 있다.⁵¹⁾ 정조가 그 일을 본떠서 어제를 내리자, 학서는 갱화를 했다.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덕을 개창함에 周公과 召公이 보필했다[唐堯在上，群龍爲用。文武創德，周召作輔。]”라고 했는데, 李賢의 注에 “여러 용들은 현신들을 비유한다[群龍，喻賢臣也].”라고 했다.

48) 蔡濟恭, 「仲春晦, 蒙賜薑, 盛事也. 特恩也. 因之頒御製一章章六句, 長短聲調, 允合韶護, 況勉勵戒敕之旨, 有足感動, 臣病呻之中, 抖擻拜稽, 乃敢賡載」, 『樊巖先生集』卷1 詩○ 賡和錄.

49) 大報壇은 임진왜란 때 援軍을 보낸 명나라 神宗의 恩義를 잊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숙종 30년인 1704년에 昌德宮 후원 서쪽 曜金門 밖 옛날 別隊營의 터에 설치한 제단이다.

50) 정약용은 3월 7일에 갱화했다. 재제공도 갱화했다. 蔡濟恭, 「敬和御製皇壇親享日次, 肅廟御詩頒示, 陪享近臣韻」, 『樊巖先生集』卷1 詩○ 賡和錄. 尹愔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3월 4일, 친히 황단에 제사를 올릴 때의 어제시에 갱운하여[三月初三日親祀皇壇, 賡進韻]을 그의 문집 『無名子集』詩稿 제3책에 남겼다.

51) 『숙종실록』 제41권, 숙종 31년 을유(1705) 3월 9일(계묘). “大報壇成肇祀親, 時惟蠶月屬和春. 衣冠濟濟班行造, 磬筦將將體幣陳. 昔被隆恩銘在肺, 今瞻神座涕沾巾. 追思豈但微誠寓, 切願寧陵聖志遵.”

정조 「황단의 친향하는 날에 삼가 양조(兩朝)의 어제운(御製韻)에 차하대(皇壇親享日, 敬次兩朝御製韻)」⁵²⁾

황제의 동쪽 순행을 어슴푸레 보는 듯해라
의의하게 황단의 나무는 천자의 봄을 기념하네.
산하의 북쪽까지 제하가 다 멸망하니
희생과 단술은 우리 동방만 이에 진설하누나.
수십 권 춘추 의리는 묵은 지 오래
삼천리 접역에서는 예의를 보전하네.
재계하고 성복하곤 엄숙히 명수를 살피나니
선왕의 萬折必東 정성을 마음으로 준행하네.

玉輅東巡悅見親, 依依壇木記王春. 山河極北淪諸夏, 牲醴吾東享肆陳.
數十麟經淹日月, 三千鰈域葆冠巾. 齋衣肅穆監明水, 萬折餘誠志事遵.

학서 「황보에 친향하면서 양조의 어제에 차운한 시에 갱화하여 올리다(廣進皇壇親享次兩朝御製韻)」

해마다 동쪽 변병이 보은하여 제사 지내니
하늘의 시기가 다시 집서⁵³⁾의 봄에 속하누나.
백년의 예약이 중원에서는 결락되고
칠묘의 의식을 바다 동쪽에서 진설하나니,
북극의 별들은 羽衛의 의장에 임하고
동쪽으로 흐르는 江漢은 의건을 씻어주네.
슬프게 황제 순임금 음악⁵⁴⁾ 9악장을 보는 듯하니
바라건대 성군께서 마음을 영원히 준행하시길.

歲歲東藩報祀親, 天時重屬執徐春. 百年禮樂中朝缺, 七廟儀文左海陳.
北極星辰臨羽衛, 東流江漢濯衣巾. 雲韶九闕愀如見, 惟願宸心永世遵.

1790년 6월 18일에 후일 순조로 등극하는 원자(元子)가 탄생했다. 1795년(을묘, 정조 19) 6월 18일,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진찬(進饌)이 있자, 정조는 오언율시를 짓고 신하들의 갱화를 요구했다.⁵⁵⁾ 그리고 1797년 6월 18일 원자와 혜경궁의 탄신일을 맞아, 정조는 洛南軒 운⁵⁶⁾으로 시를 지어 반사하고 신하들의 갱

52) 『홍재전서』 권7에 수록되어 있다. 정조의 어제는 상평성 제11 眞 운의 글자를 사용하여 첫구에도 운자를 넣어 親, 春, 陳, 巾, 遵 등 다섯 글자를 운자로 선택했다.

53) 執徐는 古甲子에서 辰을 가리킨다. 이 해 干支가 辰이 들어간 병진년이기 때문에 말한 것인데, 실은 왜란이 일어난 임진년(1592, 선조 25)과 마찬가지로 辰이 들어간 해임을 언급한 것이다.

54) 원문의 '雲韶'는 黃帝의 음악인 「雲門」과 순 임금의 음악인 「大韶」를 병칭한 것으로, 궁궐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55) 正祖, 「자궁의 60회 탄신에 측수의 잔을 올려 장수를 빌고, 삼가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서술하여 연회 자리에 참여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慈宮周甲誕辰, 奉觴上壽, 恭述志喜之誠, 眎與筵諸賓)」, 『홍재전서』 권6.

화를 요구했다. 학서도 갱운을 남겼다.⁵⁷⁾

정조 어제 「영춘헌에서 축수 잔을 올리고 기쁨을 기록하면서 지난번 낙남(洛南)의 운을 사용하다迎
春軒奉觴志喜用洛南前韻」

대비궁의 많은 경사가 예전보다 빛나서
노래자의 채의 입고 춤추며 현수연을 거둬 열었네.
탁 트인 집에 봄 맞아 봄이 늙지 않으리니
삼가 이 모임을 해마다 가지리라.

椒塗衍慶自光前, 綵舞重開獻壽筵. 軒敞迎春春不老, 恭將此會又年年.

학서 「상감이 영춘헌에서 술잔을 올리면서 기쁨을 기록하여 낙남헌의 앞 운으로 지은 시에 갱화하
여 올리다賡進御製迎春軒奉觴志喜用洛南軒前韻」

장수하신 모친 앞에서 왼손을 품에 안으시매
낙남의 화기가 다시 이 연석에 충만하네.
시종신들은 다투어 노래자 곡조를 연주하며
반석같이 태평스런 상서가 만년토록 영구하라 칭송하네,

提抱元良壽母前, 洛南和氣又斯筵. 侍臣競奏萊衣曲, 盤泰休祥頌萬年.

1799년(기미, 정조 23) 7월 24일⁵⁸⁾에 학서는 정조의 경봉각(敬奉閣) 시에 갱화하여 경봉각의 어제에 갱
운하여 올렸다. 경봉각은 황명의 고칙을 받드는 곳이다(賡進敬奉閣御製韻, 閣奉皇明誥勅)을 남겼다. 이보다
앞서 영조 46년인 1770년에 경희궁(慶熙宮)과 창경궁(昌慶宮)의 승문원 내에 각각 각(閣)을 세우고 국조 이
래의 조칙(詔勅)을 봉안하게 되었는데, 영조가 직접 각의 이름을 써서 내걸었다. 경희궁에 있는 것은 경봉각
이라 하고, 창경궁에 있는 것은 흥봉각(欽奉閣)이라 했다. 1773년(영조 49) 7월 21일 명나라 현황제(顯皇帝,
神宗)의 탄생일을 맞아 영조가 경봉각에 나아가 예를 행했는데, 왕세손이던 정조도 함께 예를 행했다. 명나
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봉사손은 가자(加資)하고, 삼학사 및 김상용·김상헌의 봉사손은 초자(超資)하

56) 『정조실록』 권6 시2 「洛南軒에서 養老宴을 거행했는데, 나이 70세 된 노인에서부터 61세 된 노인까지 참여했으므로, 拜禮
는 一坐再至의 예를 사용했다. 여러 노인들이 각각 제자리로 나아가려 하자, 내가 노인들을 위하여 일어났다. 이미 堂에 올
라가서 술잔이 세 순배가 돌아갈 때에 노인들에게 물어 보이면서 화답하기를 구하다洛南軒, 行養老宴, 七十者暨六十一歲者
與焉. 拜用一坐再至之禮. 羣老將就位, 予爲羣老興, 既升堂, 酒行三遍, 吟示羣老求和. “지팡이에 학발 노인들이 앞뒤로 모이
니, 바다 동쪽 낙남 연회에 화기가 넘치네. 바라노니 노인들 백 세의 장수를 가지고, 우리 자궁께 만만년을 절하고 바쳐 주
오.[鶴髮鳩筇簇後前, 海東和氣洛南筵. 願將羣老期頤壽, 拜獻慈宮萬萬年.]”

57) 蔡濟恭, 「上以翁主有痘候, 依肅廟故事, 率元子移次摘文院, 留十日, 痘患良已, 聖心嘉悅, 次朱子韻, 賦五言近體, 命承候諸大臣
閣臣賡和, 皆令揭櫫, 昭代吉祥, 可以傳示無窮也」, 『樊巖先生集』卷1 詩○ 賡和錄.

58) 尹愷, 「上以七月二十一日 皇明顯皇帝諱辰 詣皇壇行望拜禮 命移構敬奉閣於壇西 奉安自高皇帝至顯皇帝誥勅 賦近體一首 以識
尊王之義 命參禮諸臣賡進 代人作」이 있다.

고 명했다. 이 날 정조는 ‘존왕(尊王)의 의리’를 표방해서 「경봉각에 삼가 제하대(謹題敬奉閣)를 지었다. 그 소서(小序)에 따르면 경봉각에는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홍무(洪武) 건원(建元) 25년인 1392년에 보내온 ‘하늘을 채발아 백성을 다스리고 길이 후사를 번창하게 하라.’고 한 조칙으로부터 현황제(신종)가 새로 찬수한 『명회전(明會典)』 및 ‘군사를 내어 왜노를 평정하라.’고 한 조칙, 고황제 이후의 어서(御書)·어화(御畫) 및 고명 인본(誥命印本)들을 보관했다.⁵⁹⁾ 학서의 시는 다음과 같다.

학서 「경봉각의 어제 시에 갱화하여 올리다. 경봉강은 황명의 고칙을 받들고 있다(廣進敬奉閣御製韻, 閣奉皇明誥勅)

붉은 해가 푸른 파도에 임한 것을 우리러 보자니
만년토록 끼친 은택이 사관의 붓을 적시누나.
황화(皇華)의 옛 자취 맑아 교서가 빛나고,
동국의 윤리가 그림 누각에 높이 걸렸도다.
태평성대 의장과 문식(文飾)은 보첩을 상고했고
옛 가문의 자제들이 왔구나 신선 도포를 두르고.
상감의 문장이 서주의 눈물을 쏟아내시니
흥중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곱절 아파라.

紅日瞻依碧海濤，萬年遺澤潤彤毫。皇華舊躅恩綸柄，東土彝倫畫閣高。
聖代儀文稽寶牒，故家來耳巾仙袍。宸章瀉出西周淚，倍覺胷中割快刀。

1799년(기미, 정조 23) 가을, 헌릉(獻陵) 참배 길에 주교(舟橋) 막사에서 정조가 시를 짓자, 신하들이 갱화했다. 정조는 무자년(1768, 영조 44) 봄 선왕을 모시고 참배한 일을 추억하면서 재실 벽의 시운(詩韻)을 따라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를 각각 1수씩 지었다.⁶⁰⁾ 갱화한 이들은 모두 81명이었다. 당시 갱재축인 「헌릉행행일갱재축(獻陵行幸日廣載軸)」은 사본으로 전한다.⁶¹⁾ 학서는 칠언절구와 칠언율시에 각각 갱화했다.

59) 『弘齋全書』卷7 詩3 「謹題敬奉閣 并小序」. “閣舊在兩關槐院，一曰敬奉閣，一曰欽奉閣。閣之設，所以尊閣也。卽我寧考義起之盛典也。其詳載寶鑑別編。皇朝誥勅，自高皇帝洪武建元二十五年體天牧民永昌後嗣之詔，至顯皇帝新修會典及出師平倭之詔，隆恩浩渥，東溥于海。海外方數千里，喙息跼蹐。凡有血氣之倫，莫不感激愛戴，如天地焉，如父母焉。顧今時移事往，冠履易置，裳華蓼蕭之詩，不復作於東土，而紫泥黃帕之爲萬世珍藏者，尙不免皇輿之蒙塵。今閣之所揭奉，高皇帝以後御書御畫諸本誥命印本，而金章寶墨，光榮燭地，自令人瞻望徊徨，不翅若曲阜烏號之遺也。槐院圯而閣惟巋然，每過此，愴焉以傷。是歲七月二十有一日晨朝，祇詣皇壇遙拜，顯皇帝諱辰，仍命有司，移構於壇西，而越三日，移奉誥勅于齋殿，仍始工役，不日而告成。其翌日，自齋殿揭奉如初。遂與提督後孫，三學士金文忠·文正·鄭文簡家人行禮，門達冽泉，階級重重，悅然若下拜登受。西顧周道，有涕沾臆。茲賦近體一首，以識尊王之義。自有天地生民以來，莫有盛於夫子。夫子之功，莫有大於春秋。春秋之義，莫有重於尊王。凡百有位，尙亦知予之心，而三綱明，九法立，變陰而爲陽，內華夏而外夷狄，未必不肇基於斯閣也云爾。時顯皇萬曆後三己未。江漢朝宗萬里濤，皇恩浩蕩注麟毫。唐堯竝立山河鞏，周稷重光日月高。草木皆知今繅域，風雲猶帶舊龍袍。昭回北苑瞻新構，百世吾東奉赤刀。”

60) “鑾蹕秋晴鷺水湄，滿江瀟灑想前時。依然戊子春三月，十里船開七詩時。”“羽林旗鼓市靑煙，龍鳳津樓月上天。卻憶廣陵春水外，回瞻梧岵彩雲邊。燈光歷歷江聲動，兵氣森森野色連。漢渡東南松柏永，此時孺慕更多前。”

61) 正祖, 「將拜獻陵, 曉次舟橋, 步戊子前韻, 以志感懷。二首」, 『弘齋全書』卷7 詩3; 柳台佐, 「廣進獻陵顯隆園行幸時, 曉次舟橋,

현릉과 현릉원에 행행하실 때 새벽에 주교에 머물면서 무자년의 앞 시에 차은하여 감회를 기록한
시의 운에 갱화하여 올리다[賡進獻陵顯隆園行幸時 曉次舟橋 步戊子前韻 以志感懷韻]

첫째 수

교산 앞길 대강의 언저리에
양류는 의의하여 지난 날에 느끼네.
한밤 군대의 북과 나팔 소리가 새벽 배의 징발을 재촉하고
살아 돌아오신 듯 성군께서 함모하여 또 시를 지으시네.

喬山前路大江湄，楊柳依依感昔時。五夜軍聲催曉舫，羹牆聖慕又題詩。

둘째 수

옥 수레 푸른 끈는 푸른 연기가 감싸고
난여는 새벽하늘 비친 강가에 너울너울.
여덟 군영 징과 북이 여울 물소리 바깥에 요란하고
백리에 뻗은 큰 깃발 旛旗는 산 그림자 가에 펄렁펄렁.
옥 비단 제물 바치는 상감 정성은 구름 하늘에 솟구치고
구슬 형상 능묘의 가을빛은 광릉에 이어져 있도다.
산악 신령과 강 귀신이 교대로 맞아주는 곳
홀연 용양봉저정 앞에 이르렀도다.

玉輅青繩擁翠煙，踰踰鸞鷺曉江天。八營金鼓灘聲外，百里旌旂山影邊。
珪幣宸誠雲漢徹，珠丘秋色廣陵連。嶽靈河伯交迎處，倏到龍驤鳳翥前。

정조는 문풍(文風)을 진흥시키 속습을 바로잡고자 삼여(三餘)마다 책 한 질(帙)을 읽어 왔고, 여러 서책을
초선(抄選)하여 중외에 간행 반포했으며, 스스로 먼저 송습(誦習)하여 한 세상의 표준을 제시했다.⁶²⁾ 특히
정조는 “내게는 내 마음의 춘추가 있다.[吾有吾心之春秋矣.]”라고 하면서, 1799년(정조 23, 기미) 『춘추경전
집해(春秋經傳集解)』를 새로 간행한 후 11월 18일부터 20일 걸쳐 12월 8일까지 완독했다. 『춘추경전집해』
는 경(經)을 우선하고 좌씨전을 격을 낮추어 뒤에 두는 편집 방식을 택했다. 자궁 혜경궁이 술과 떡을 준비
하여 ‘책씻이(冊施時)’를 열어주자, 정조는 감인(監印)과 현두(懸讀) 맡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제
의 시를 내 보였다.⁶³⁾ 그 어제에 22명이 갱화했는데, 학서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⁶⁴⁾

步戊子前韻，以志感懷韻，『鶴棲集』 권1.

62) 을묘년에는 『朱書百選』을 간행하여 10월 28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49일 지난 12월 16일에 완독하고, 병진년에는 『五經百篇』
을 간행하여 11월 11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28일 지난 그 다음 달 8일에 완독했으며, 정사년에는 『史記英選』을 간행하여
10월 8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80일 지난 12월 27일에 완독하고, 무오년에는 『八子百選』을 간행하여 11월 1일부터 읽기 시
작해서 45일 지난 그 다음 달 15일에 완독했다.

정조는 어려서 책 한 질을 완독하면 자궁인 혜경궁이 책씻이를 해주었다. 주자가 장남 주숙(朱塾, 字 受之)을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에게 보내면서 일각차(一角茶) 30근을 부송(付送)한 뜻을 이은 것이라고 한다. 정조는 “채색옷을 입고 어린애처럼 장난한 것은 노래자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던 바이고, 기쁨이 휘장에 넘친 것은 주자께서 어머니께 축수하던 바이다.⁶⁵⁾ 이미 자궁께 한량없는 축수를 드리고 이어서 이 시를 써서 여러 사람에게 화답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하고 오언율시를 지었다. 어제의 그 시는 상평성 제6 魚운의 ‘歟, 餘, 書, 如’자를 운자로 사용했다.⁶⁶⁾ 학서의 시는 다음과 같다.

책 한 질을 완독하고 자궁께 헌수하면서 지으신 어제에 갱화하여 올리다(廣進完讀一帙, 獻祝慈宮御製韻)⁶⁷⁾

해동이 천재일우 때를 만났으니
이번 행사는 참으로 성대하여라.
노래자 춤추며 기뻐하는 날
『춘추』의 필삭을 마친 뒤로구나.
참된 공부는 우임금의 척려(惕厲)⁶⁸⁾를 따르고
옛일은 주자의 서적을 고찰했도다.
손뼉치고 발구르며 어제에 갱화하고
연회 베푸시매 운 좋게 나아갔네.⁶⁹⁾

- (63) 『홍재전서』 권7 詩3 「춘추를 완독(完讀)하던 날에 자궁(慈宮)께서 음식을 베풀어 주어 기쁨을 표시하므로, 읊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다 소서를 아울러 쓰다(春秋完讀日, 慈宮設饌識喜, 吟示諸臣, 并小序). “予於三餘, 輒課一帙之書, 歲以爲常, 而手選諸書, 必印頒中外. 蓋亦振文風矯俗習之苦心也. 書既頒, 躬先誦習, 爲一世準. 乙卯, 新印朱書百選, 而十月二十八日始讀, 再翼月十有六日完讀, 凡四十有九日. 丙辰, 新印五經百篇, 十一月十一日始讀, 翼月初八日完讀, 凡二十有八日. 丁巳, 新印史記英選, 十月初八日始讀, 再翼月二十七日完讀, 凡八十日. 戊午, 新印八子百選, 十一月初七日始讀, 翼月十五日完讀, 凡四十有五日. 己未, 新印春秋, 新印以前讀數回, 十一月十八日更讀, 十二月初八日完讀, 凡二十日. 左氏, 史也. 雖近於朱子所謂千里一曲, 致慨於明招堂上, 而先經後傳, 吾有吾心之春秋矣. 於是乎予印予讀已告功, 自明年有新印, 當如右爲例, 顧精力未能如宿踐也. 記昔幼少時, 讀完一帙, 慈宮輒設小饌以識喜, 俗所稱冊施時之禮是也. 朱子以長子受之, 送學於東萊, 而付送一角之茶三十觔, 卽此意也. 今日以有事輒聞之義, 告慈宮以春秋之完讀, 慈宮視小子若幼少時, 略備酒餅如村樣, 遂與監印懸讀諸人, 共嘗之. 戲是綵衣, 老萊之所以悅母也. 喜動簾幃, 紫陽之所以壽母也. 既獻閭陵祝于慈宮, 因書此, 要與諸人和.”
- (64) 正祖 52卷, 23年 12月 8日 辛卯. “召見閣臣. 教曰: ‘予於近日, 課讀新刊『春秋』, 今日纔畢, 而慈宮爲念予幼少時冊施時【國俗小貌讀書竟卷, 其父母飲食以識喜, 謂之冊施時.】之事, 設小饌, 故茲與卿等共嘗之.’ 群臣頓首賀, 書下御製, 命入侍諸臣及『春秋』懸讀及監印時與聞諸臣, 當于春桂坊人, 並令廣進.”
- (65) 朱熹 「壽母生朝」시에, “어젯밤 서늘한 가을바람에 돌아오니, 오늘 아침엔 기쁨이 휘장에 넘치네. 새 봄술을 넘실넘실 따라 올리고, 알록달록 옛 옷으로 어리광 춤을 춘네. [昨夜秋風涼氣歸, 今朝喜色動簾幃. 細斟激盃新春酒, 戲舞斑斕舊綵衣.]”라고 했다.
- (66) “侍食諸君子, 能知此會歟? 伊吾完一帙, 工課殿三餘. 每夜光明燭, 今年左氏書. 慈心識喜事, 樂舞九詩如.”
- (67) 柳台佐, 『鶴樓先生文集』卷1, 「廣進完讀一帙獻祝慈宮御製韻」(奎章閣講製抄啓時).
- (68) 우임금의 惕厲: 척려는 조심조심하는 모습. 『주역』 乾卦 九三에 “군자가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어서 저녁까지도 두려운 것이 행동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라고 하였다. 方以智의 『一貫問答』에, “우임금은 두려운 듯 행동하여 근감했으므로, 용을 보기를 도마뱀 보듯이 했다(禹惕勤儉, 故視龍猶蝘蜓.)”라고 했다. 『회남자』 「精神訓」에 보면, 우임금이 남방을 순시하다가 강을 건널 때 황룡이 등으로 배를 떠받치자 사람들이 두려워 안색이 변했으나 우임금은 ‘나는 천명을 받아 힘을 다하여 만민을 위로하는 중이다.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죽음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늘, 무엇이 나의 원기(元氣)를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하고, 용을 보기를 도마뱀 보듯 했다. 그러자 용이 곧 귀를 내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

海東千一會，此學儘猗歟。萊舞歡嬉日，麟毫筆削餘。
眞工枚禹惕，故事按朱書。拊蹈賡宸什，易筵幸晉如。

한편 학서의 「현릉에 친제하고 돌아오다가 과천현에 머물면서 지은 어제에 갱운하여 올리대(賡進親祭獻陵還次果川縣御製韻)」는 정조가 1799년(정조 23)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현릉(태종과 원경황후 능) 및 현릉원에 행행하고 돌아오던 중추일에 지은 시에 갱제한 것이다.⁷⁰⁾ 『학서집』에는 정조의 어제 원운을 수록하지 않았다. 정조는 어제의 소서에서, ‘무자년 봄에 영조를 모시고 현릉(태종의 능)을 배알하고 지은 시’⁷¹⁾가 있어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지금 왕위에 오른 몸으로 예를 거행하자 선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므로 예전 시에 차운하여 그 일을 기록한다고 했다. 또한 정조는 “선조께서 재위하신 50년 동안에 세신(世臣)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오복을 거두어서 만세를 편안하게 하신 일은 모두가 본릉께서 개창하고 수성하신 풍공대업(豐功大業)을 우리러 계술하신 것이다.”라고 했다.⁷²⁾ 정조의 어제는 칠언율시(수구입운)로, 하평성 제8 庚운의 ‘行, 營, 聲, 生, 淸’을 운자로 사용했다.

학서 「현릉에 친제하고 돌아오다가 과천현에 들러 지은 어제에 갱화하여 올리대(賡進親祭獻陵還次果川縣御製韻)」

춘추로 현릉원 배알하여 천도를 따라 행차하시고
금척을 꿈에 보아 큰 계책으로 만세를 경영하시네.
교산(喬山)의 서리와 이슬은 옛 감동을 더하고
청조(淸廟)의 노래와 현악기는 옛 음향을 끼치나니,
동방에서 맨 먼저 나와 국가 터전 넓히셨고
황극(皇極)을 거듭 아름답게 세워 백성들 살아가네.
흰 머리 노인들은 기뻐 손뼉치고
현궁에 미치는 상감 효성으로 새벽이 맑아라.

春秋祇謁法天行，金尺洪謨萬世營。霜露喬山添舊感，歌絃淸廟有遺聲。

- 69) 나아갔네: 원문의 ‘晉如’는 『주역』 「晉卦 六二」의 “나아감이 근심스러우나 貞하면 길하리니, 큰 복을 왕모에게 받으리라.[晉如，愁如，貞吉，受茲福于其王母。]”라고 한 표현을 끌어온 것이다.
- 70) 『학서집』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춘추를 完讀하던 날에 慈宮께서 음식을 베풀어 주어 기쁨을 표시시므로, 읊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다 소서를 아울러 쓰다」보다 뒤에 실었다.
- 71) 1768년(영조 44)의 현릉 행행에 참가한 정조는 「강 머리에서 갠 하늘을 바라보다(江頭晴望)」, 「광진의 배 위에서(廣津船上)」, 「어가를 모시고 현릉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다(陪駕詣獻陵經宿)」의 세 수를 지었는데, 현릉에서 지은 시는 行·營·聲·生·淸의 운자를 사용했다.
- 72) 『홍재전서』 권7 詩3 「獻陵의 齋室에 삼가 제하다 소서를 아울러 쓰다[敬題獻陵齋室 并小序]」. “小子於戊子春，陪先朝展謁本陵，恭賦一詩，以紀其事。今於三十二年之後，踐位行禮，孺慕彌新，謹次前韻以識之。且按伊時聖製之題謁齋室者，聖教若曰：‘今日大小臣僚，仰體祖宗盛德，滌舊心於廣津，輔我暮年，隨後者誰。’惟我先朝，五紀建極，全保世臣，斂時五福，綏厥萬世，率皆仰述本陵開創守成之豐功大業，而十行雲漢之篇，乃在於親祭本陵之日，則不顯丕承之謨烈，尙可以仰認於出戶周旋之時矣。茲於五六，敢頌聖德之光前垂後，而仍告有位，俾各一乃心，率乃職，無偏無黨，無從匪彝，偕之大道，同我太平。書曰：‘惟予一人，膺受多福。’此我聖祖所以燕翼我子孫千億，懋昭常訓者也。時予小子即昨二十有三年之己未仲秋。”

東方首出宏基奠，皇極申休庶物生。野老皤皤爭喜抃，格玄宸孝曉朝清。

태종이 조선의 국기를 넓히고, 정조가 황극을 세워 백성들 삶을 안정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정조가 현릉원에 배알하여 효성을 다 하셔서 맑은 시절을 가져왔다고 칭송했다.

Ⅲ. 학서의 친시제(親試製)와 과시제(課試製)

정조 때 초계문신은 친시(親試)와 과시(課試)에 응시하여 각종 시문 양식을 평가받아야 했다. 또한 春帖子를 쓰기도 했다. 친시나 과시의 실행 일자는 『일성록』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학서와 같은 선발의 이희발은 춘첩자를 두 수 남기고 있으나, 학서는 춘첩자를 남기지 않았다. 또한 이희발보다는 친시나 과시의 작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

〈표 5〉『日省錄』, 『鶴棲集』, 『雲谷集』의 親試와 課試 상황

연도	『日省錄』	柳台佐『鶴棲集』 권1	李義發『雲谷集』 권1
정조 21 (병진, 1797)			大殿春帖 丙辰製進 5월
정조 23 (기미, 1799)			大殿春帖 己未製進 7월 수구입운.
정조 18 (갑인, 1794) 11월 23일	10월 親試, 3개월 課講, 11월 課試. 「擬本朝內閣印進御定朱書百選」 (箋)	[*二下 수석]	
정조 19 (을묘, 1795) 4월 7일	律詩, 賦, 罰射. 賦.	[*100韻으로 三中 수석]	
10월 21일	春塘臺에서 抄啓文臣試射·九月 親試·策題「還餉」10일까지 제진.	[*試射 참여]	
11월 16일	1-2월 課試의 追試. 「虎視何雄哉」 (七言四韻律)	[*呈券]	
12월 11일 (무자)	「進宴第一爵致詞七言長篇或律詩 頭辭則依例書之王母獻仙桃韻依原 韻」(지난 6월 親試를 보임)	「次王母獻仙桃樂詞韻」 二首	*王母獻仙桃。二首○進宴第一爵致詞。 奉教製進。7월 2수, 수구입운.
12월 26일	都計劃	[*25分]	
정조 20 (병진, 1796) 11월 17일 (무오)	6월 親試와 7월 課試를 보임. 七言 四韻律詩 親試題 「單于夜遁逃」/ 五言四韻律詩課試題 「有草生庭」	「有草生庭」	有草生庭 御題製進 5월

연도	『日省錄』	柳台佐『鶴棲集』 권1	李義發『雲谷集』 권1
11월 28일	親試. 「已發未發之性」	[*二下]	
11월 29일	親試의 更試, 課試. 庸作歌(次韻)	[*呈券]	
12월 10일 (신사)	12월 親試, 9월 試射, 春塘臺. 「玄圭」(七言四韻律)	「玄圭」(三下一 수석)	
12월 11일	熙政堂에서 都計劃	[*34分. 虎皮1벌]	
정조 21 (정사, 1797) 9월 26일 (임진)	「龍門有遺歌十八韻」 (춘당대 초계문신 親試)	「龍門有遺歌十八韻」	龍門有遺歌十八韻 奉敎製進 7언18운 36구, 수구입운.
12월 20일	都計劃(親試, 課試, 課講)	[*親試 32分, 課試 9分 半, 課講 196分]	
정조 22 (무오, 1798) 12월 8일 (정유)	「玉淵三峽, 講乾坤二卦, 十八韻」 (便殿 抄啓文臣 親試)	「玉淵三峽講乾坤二卦 十八韻」	玉淵三峽講乾坤二卦十九韻 7언18운 36구
12월 11일 (경자)	「魚龍出聽」 (지난 11월 抄啓文臣 親試 시제)	「魚龍出聽」	魚龍出聽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三冬文史」 (지난 11월 초계 문신 課試 시제)	「三冬文史」	三冬文史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12월 28일	親試 都計劃	[*14分半]	
정조 23 (기미, 1799) 6월 15일	6월 12일~14일 更試 (賦 排律 古詩)	[*飯牛牛亦肥(賦) 6分半]	
12월 13일 (병신)	11월 親試, 7번 비교. 七言四韻律 「冬至至後日初長」/ 表題 「虞百姓 等謝命契數教得免飽食煖衣則近於 禽獸」/ 五言四韻律 「魚虎」/ 五言絕 句 「梅花若爲賦」/ 五言四韻律 「投 壺」/ 七言四韻律 「蹴鞠」/ 七言四 韻律 「六博」	「魚虎」, 「投壺」, 「梅花 若爲賦」[*「則近於禽獸」 (表) 三下, 「「梅花若爲 賦」(五言絕句) 二下 수 석]	
12월 15일	都計劃(親試, 課試, 課講)	[*親試 38分, 課試 22分, 課講 62分半]	
			洞庭張樂 御題製進 5절
			水車 御題製進 5을
			八駿圖 御題製進本朝 5을
			春在枝頭已十分 御題製進 5을
			春星帶草堂 御題製進 5을

연도	『日省錄』	柳台佐『鶴棲集』 권1	李義發『雲谷集』 권1
			石鼓 御題製進 5을
			鐵笛亭 御題製進 5을
			只在蘆花淺水邊 御題製進 5절
			牛戴牛歌 御題製進 7언18운 36구
			大雪二十韻 奉敎製進 7언20운20구 백량체
		「高處最先紅。 排律十韻」	金剛高處最先紅十韻 奉敎製進 7언10운20구 격구입운, 수구입운.
			單于夜遁逃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銅人勝」	
		「早晚燕然刻頌詩」	早晚燕然刻頌詩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先此示年豐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寬大書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二之日鑿氷冲冲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정조 20(1796) 2월 20일 重試文科 賦題 「槐陰滿庭」		槐陰滿庭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又臥旗亭送夕陽」	又臥旗亭送夕陽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老枝擎重玉龍寒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諸峰羅立似兒孫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日中爲市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不是尋行數墨人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忽憶戴安道 奉敎製進 7을 수구입운.
			東方朔 奉敎製進 7절 수구입운.
		「語君眞富貴」	語君眞富貴 奉敎製進 7절 수구입운.
			駒駉 奉敎製進 5을시.
			撒塩和羹梅十韻 奉敎製進 7언10운20구 수구입운.
			次康衢歌韻 奉敎製進 8언 초사체 4구,
			傳「萬德傳」[奎章閣講製時奉敎製進. 『雲谷集』 권8]
			說「誠幾神說」[이하 奎章閣講製時奉敎製進. 『雲谷集』 권8]
			說「生之謂性說」

연도	『日省錄』	柳台佐『鶴棲集』 권1	李義發『雲谷集』 권1
정조 19 (을묘, 1795) 8월 23일 (신축)			說「纔說性時便已不是性說」
			贊「小往大來贊」[奉教製進, 『雲谷集』 권8]
			銘「中和尺銘(并序)」[이하 奉教製進, 『雲谷集』 권8]
			銘「南薰琴銘」
			銘「李學士晚秀木展銘」
			銘「硯銘(并小序)」
			銘「墨銘」
			「擬本朝農民等謝下求農書綸音箋」 [奉教製進, 이하 『雲谷集』 권8]
정조 18 (갑인, 1794)		「擬本朝人瑞錄老人七萬五千一百餘人, 進壽五百八十九萬八千二百歲箋[抄啓應製」	「擬本朝人瑞錄老人七萬五千一百餘人。進壽五百八十九萬八千二百歲箋」
			「擬本朝內閣進新印御定奎章全韻箋」
			「擬本朝御醫進濟衆新編箋」
정조 22 (무오, 1798) 4월 12일 (병오)			「擬本朝湖南道臣請修劉仁軌所築帶方城以重關防箋」
정조 21 (정사, 1797) 2월 10일 (신사)		「擬本朝鑄字所進鄉飲儀式鄉約條例箋[抄啓應製」	
			敎「擬均役敎」[奉教製進, 이하 『雲谷集』 권8]
			敎「擬鄭命子產潤色辭命敎」
			律賦「雪(律賦) 命韻雪」 [이하 奉教製進, 『雲谷集』 권8]
			律賦「壽域(律賦) 命韻稱彼兕觥萬壽無疆」
			賦, 奎章閣講製時. 「會稽之石則幾倍之」(呈白券. 詳見憶舊遊詩註) 원문 없음 <批三中. 仍下敎曰: 事君不欺, 白直可尙.> [이하 『雲谷集』 권8]

연도	『日省錄』	柳台佐『鶴棲集』 권1	李義發『雲谷集』 권1
정조 21 (정사, 1797) 10월18일 (계축)			賦, 奎章閣講製時. 「東坡曰月出於東山之上. 山谷曰左丘明」 원문 없음. 〈三中, 批曰: 汝也故優等. 汝何巔人也〉
			策「問周易」(杜制試券, 御考) [이하『雲谷集』 권8]
			策「問雅誦」(御考, 三中一)

정약용의 경우는 1790년(정조 14년) 7월 이후 '내각응교(內閣應敎)'의 시를 여러 편 남겼다.

- ㉠ 시제는 '주렴 밖 봄기운이 차갑다고 비단 도포 하사하네[簾外春寒贈錦袍]'이다. 【題曰「簾外春寒賜錦袍」】: 성당 시인 왕창령(王昌齡)의 「춘궁곡(春宮曲)」의 한 구절을 시제로 삼은 칠언배율.
- ㉡ 시제는 '벼와 기장이 잘 자라 기뻐한다[喜悅好禾黍]'이다. 【題曰「喜悅好禾黍」】: 성당 시인 저광희(儲光羲)의 「전가잡흥(田家雜興)」의 한 구절을 시제로 삼은 오언율시.
- ㉢ 시제는 '봉황지에 오늘날 봉황의 깃이 있음을 보라[池上于今有鳳毛]'이다. 【題曰「池上于今有鳳毛」】: 두보(杜甫)의 「화가지사인조조대명궁(和賈至舍人早朝大明宮)」시의 한 구절을 시제로 삼은 칠언율시.
- ㉣ 시제는 '모든 나라 사절이 황제에게 절 드리네.[萬國衣冠拜冕旒]'이다. 【題曰「萬國衣冠拜冕旒」】: 왕유(王維)의 「화가사인조조대명궁지작(和賈至舍人早朝大明宮之作)」가운데 한 구절을 시제로 삼은 오언배율.
- ㉤ 시제는 '천자의 얼굴에 기쁜 기색 있으면 시종신들이 아누네[天顏有喜近臣知]'이다. : 1790년 7월 23일 내각의 친사에서 두보(杜甫)의 「자신전퇴조구호(紫宸殿退朝口號)」한 구절을 시제로 삼아 지은 칠언 십운배율.
- ㉦ 시제는 '만리를 횡행할 수 있도대[萬里可橫行]'이다. : 두보(杜甫)의 「방병조호마(房兵曹胡馬)」시의 한 구절을 시제로 삼은 칠언 십운배율.

학서의 친시와 과시의 시는 「차왕모현선도악사운(次王母獻仙桃樂詞韻)」 2수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1795년(을묘, 정조 19) 12월 11일(무자) 지난 6월 치러야 할 친사에서 지은 것이다. 어제(御題)는 “진연 제1작의 치사로는 칠언장편이나 칠언율시로 - 두사(頭辭)는 규례대로 쓰라. - 「왕모현선도」를 지으라. - 운은 원운을 따르다[進宴第一爵致詞七言長篇或律詩頭辭則依例書之王母獻仙桃韻依原韻]”⁷³⁾였는데, 검열(檢閱) 오태증

73) 王母는 仙女 西王母이다. 「현선도」의 원운은 알 수 없다. 고려와 조선의 진연의궤에서 사용하던 「獻仙桃曲」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漢나라 元封 1년에 서왕모가 武帝에게 蟠桃 일곱 개를 바쳤다고 한다. 『국역 진연의궤』 제1권 「樂章」에 “송나라의 詞曲 중에 「仙呂宮王母桃」가 있었는데, 고려조에서 이를 모방하여 「獻仙桃曲」을 만들어 송축하는 음악으로 사용했으며 우리 조정에서 사용했다.” 했다. 秀才 때에 왕모 1명, 挾舞 2명, 竹竿子 2명이 奏樂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장면이 바뀔 때마다 부르는 詞가 있다. 왕모가 仙桃盤을 받들고 「현선도」의 致詞로 「元宵嘉會詞」를 부른다.

(吳泰曾)이 장편(長篇)으로 삼상(三上)을 맞아 수석을 차지했다.

첫째

궁전 모서리에 요순 시절 광명의 해가 오르자
 도삭산⁷⁴⁾의 양기가 영기자 부드러운 기운 감도네.
 요지연의 구름 가까이 법연을 열고
 장락궁 깊은 곳의 중앙에 좌정하셨다.
 별은 남극 주위를 돌아 그림자 휘황하고
 꽃은 동풍에 쌓아 차츰차츰 향이 짙어라.
 다시 보매 구중궁궐 봄빛 속에 취한 분들
 군왕 위해 장수를 빌며 상서로운 긴 노래 부르누나.

觚稜日上舜堯光，和氣先凝度索陽。雲近瑤池開法宴，宮深長樂坐中央。
 星回南極輝輝影，花襲東風冉冉香。更看九重春色醉，君王遐壽發長祥。

둘째

궁궐의 옛 음악⁷⁵⁾ 한 곡조가 구천에 울리자
 칠성관 쓴 신선들이 채화 연석에 날아 내려 오는 듯.
 신선들은 구리쟁반에 세 밤 내린 이슬을 손으로 움켜 뜨고
 짐승 모양 술⁷⁶⁾ 태우자 향이 뜨고 아홉 점 연기가 오르네.
 깃달린 작은 새와 상나라 때 같은 신하들이 혼융한 교화 속에 안주하고
 거북같이 나이 드시고 학같이 장수하시길 술동이 앞에 무릎 꿇고 비누나.
 은근하게 부탁의 말할 하나니 꽃이 열매를 맺어
 보력이 천에 천, 만에 만의 나이가 되시기를.

一曲雲韶響九天，星冠飛下綵花筵。仙人掌挹三霄露，獸炭香浮九點煙。
 羽物商臣渾化內，龜齡鶴壽拜罇前。慇懃寄語花成實，寶曆千千萬萬年。

「풀이 뜠에 나대有草生庭」는 1796년(병진, 정조 20) 11월 17일(무오)에 지난 6월 치렀어야 할 친시와 7월 치렀어야 할 과시를 볼 때 과시에서 지은 것이다. 이날 친시제(親試題)는 “선우가 밤중에 도망가대單于夜遁逃⁷⁷⁾”라는 글제로 칠언사운을 지으라”였는데, 사복시정 최광태(崔光泰)가 二中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74) 滄海 속에 도삭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큰 복숭아나무가 있어 반도가 열린다고 한다. 『山海經』에 나온다.

75) 원문의 ‘雲韶’는 黃帝의 음악인 ‘雲門’과 순 임금의 음악인 ‘大韶’를 병칭한 것으로, 궁궐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76) 원문의 ‘獸炭’은 석탄을 가루로 만들어 짐승 모양으로 문쳐 놓은 것이다. 쯤나라 때 도성의 豪貴家들이 이것을 가지고 술을 대워 마셨다고 한다. 『晉書 外戚 羊琇傳』

77) 唐나라 盧綸의 「塞下曲」에 “달도 없어 칠곡 같고 기러기 높이 나는데 선우가 밤중에 도망가도다. 날랜 기병 거느리고 추격

과시제(課試題)는 “풀이 뜰에 나대[有草生庭]⁷⁸⁾로 오언사운율을 지으라”였는데, 권지승문원부정자 홍낙준(洪樂浚)이 이하(二下)로 수석을 차지했다.

「현규(玄圭)」는 1796년 12월 10일(신사) 이달 춘당대에서 실시된 친시에서 칠언사운율의 시제로 내걸린 것이다. 학서가 삼하일(三下一)로 수석을 차지했다.

「용문에 아직 남아 있는 노래가 있다, 십팔운(龍門有遺歌十八韻)」은 1797년(정사, 정조 21) 9월 26일(임진) 춘당대 친시에서 지은 것이다. 이날 「용문에 아직 남아 있는 노래가 있다(龍門有遺歌)⁷⁹⁾로 칠언고시의 제목을 삼고, 「파릉에서 술을 마시고 동정호의 가을에 취한다(巴陵酒醉洞庭秋)⁸⁰⁾로 부(賦)의 제목으로 삼았다. 시에서는 부사과 권준(權峻)이 삼상(三上)으로 수석을 차지하고, 부에서는 승정원 주서 김이영(金履永)이 삼상일(三上一)로 수석을 차지했다.

「옥연삼협강건곤이괘, 십팔운(玉淵三峽講乾坤二卦十八韻)」⁸¹⁾은 1798년(무오, 정조 22) 12월 8일(정유) 편전(便殿)의 친시에서 작성한 칠언고시이다. 이어 2월에 치렀어야 할 과강, 3월에 치렀어야 할 과강, 4월에 치렀어야 할 과강, 5월에 치렀어야 할 과강, 6월에 치렀어야 할 과강, 7월에 치렀어야 할 과강을 치렀다.

「삼동문사(三冬文史)」와 「어룡출청(魚龍出聽)」은 1798년(무오, 정조 22) 12월 11일(경자) 지난 11월 치렀어야 할 과시와 친시에서 각각 지은 것이다. 그 날 친시제는 “물고기와 용이 나와서 들었다(魚龍出聽)로 칠언사운 율시를 지으라”였는데, 병조 정랑 이면승(李勉昇)이 이하(二下)로 수석을 했다. 과시제는 “삼동문사(三冬文史)’로 칠언사운율을 지으라”였는데, 부수찬 조만원(趙萬元)이 삼상일(三上一)로 수석을 했다.⁸²⁾

「어호(魚虎)」, 「투호(投壺)」, 「매화를 어찌 시로 짓겠나(梅花若爲賦)」는 1799년(기미, 정조 23) 12월 13일(병신) 지난 11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親試)를 일곱 차례 비교(比較)할 때 지은 것들이다.

즉, 처음에 칠언사운율 「동지 뒤로 날이 비로소 길어졌다(冬至至後日初長)」를 시험했는데, 부사과 강준흠(姜浚欽), 권지부정자 홍명주(洪命周)가 이하(二下)로 같았다. 표제(表題) 「우나라 백성들이, 순임금이 설에 게 명하여 자주 가르침을 펴게 한 결과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니 금수에 가깝게 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을 사레했다(虞百姓等謝命契數教得免飽食煖衣則近於禽獸)⁸³⁾로 차하(次下)의 직각 김근순(金近

하러 할 때 활과 칼에 가득 큰 눈이 내렸네.[月黑雁飛高 單于夜遁逃 欲將輕騎逐 大雪滿弓刀] 했다.

78) 「有草生庭」은 『竹書紀年』 상권 「帝堯陶唐氏」의 “어떤 풀이 뜰에 났는데 매월 초하루부터 잎이 하나씩 나서 보름이면 열다섯 잎이 나고, 보름 이후에는 잎이 하나씩 떨어져 그믐이 되면 다 떨어졌다. 그 풀을 蕓莢(명협)이라 했는데, 曆莢(역협)이라고도 한다.”에서 나왔다.

79) 朱熹 「齋居感興二十首」 제12번째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程頤가 만년에 洛陽 龍門의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읊은 것이다.

80) 李白 「陪侍叔叔遊洞庭醉後三首」에 “파릉에서 한없이 술을 마시고, 동정호의 가을에 흠뻑 취한다(巴陵無限酒 醉殺洞庭秋).”라는 구절이 있다.

81) 朱熹의 제자이자 사위 黃榦(1152~1221)이 江西省 廬山 주변의 玉淵과 三峽을 노닐면서 이곳을 유람했던 스승 주희를 추억하고 그곳의 白鹿洞書院에서 乾卦와 坤卦를 강한 고사를 말한다. 『宋史』 卷430 道學4 「黃榦列傳」. 옥연은 여산에 있는 못이고, 삼협은 瞿塘峽·巫峽·西陵峽의 합칭이다. 백록동서원은 강서성 星子縣에 있는데, 1179년 주희가 南康軍太守로 부임하여 예전의 학관을 중수하고 강화한 곳이다.

82) 三冬文史는 東方朔이 한 무제에게 올린 글에 “13세에 글을 배워 겨울 석 달간 익힌 문사의 지식이 응용하기에 충분하다(年十三學書, 三冬文史足用).”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漢書』 卷65 「東方朔傳」.

83) 맹자는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어서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와 가까워진다. 이 때문에 성인이 이를 근심하여 契로 사도를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했다. 『孟子』 「滕文公上」.

淳) 등을 비교하자, 부사과 학서, 직각 김근순, 권지부정자 홍명주가 삼하(三下)로 등급이 같았다. 오언사운 율시 「어호(魚虎)」로 차하(次下)에 대해 재차 비교하자, 권지부정자 이홍겸(李弘謙)이 이하일(二下一)로 수석을 차지했다. 오언절구 「매화를 어찌 시로 짓겠네(梅花若爲賦)」⁸⁴⁾로 재시험하자 학서가 이하(二下)로 수석을 차지했다. 오언사운을 「투호(投壺)」로 삼하(三下) 이상을 재시험하자 검열 이존수(李存秀)가 이중(二中)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칠언사운을 「축국(蹴鞠)」으로 이하(二下) 이상을 재시험하자 이존수, 홍명주, 이홍겸이 삼중(三中)으로 등급이 같았다. 칠언사운을 「육박(六博)」으로 삼중(三中) 이상을 재시험하자, 검열 이존수가 삼중일(三中一)로 수석을 했다.

한편 「동인승(銅人勝)」, 「조만연연각송시(早晚燕然刻鏤詩)」, 「우와기정송석양(又臥旗亭送夕陽)」, 「어군진부귀(語君眞富貴)」, 「고처최선홍배울십운(高處最先紅排律十韻)」은 작성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동인승」은 이희발의 문집에도 없는 시제이다. 이 가운데 「고처최선홍배울십운」은 시제의 紅 자를 택하여 상평성 제1東운으로 압운했다.

일만이천봉이 아침 놀에 싸여
멀리 보니 불 일산이 상층의 허공에 떠 있네.
열은 남기 속에 희미하게 학 모습 분별되고
아침 해가 아득히 나는 새를 먼저 따라 쫓더니,
높이 솟아 나열한 봉우리들은 참으로 상계의 모습
깎아질러 삼엄한 벽들은 역시 조물주의 공교한 기술.
얼음 새기고 옥 쪼은 듯 모두 특이한 형상
구름 퍼지고 하늘 열리니 너무도 숭고하다.
곧바로 우이의 회중 댁에 이르고
평평하게 창해의 옥 용궁에 이어지네.
천지간에 오르락내리락 잠깐 새 동이 터서
일만 나라에 광명이 차례로 통하누나.
나직한 봉우리들이 빛을 받아 쌓였던 비취빛 거두고
절정으로 날아오르자 처음으로 홍색 덩어리를 보네.
어찌 조화에 선후의 분별이 있기 때문이라
쫓아난 것에 상중하의 구별이 있어서라네.
평범한 누대 바깥의 층루가 먼저 달을 접하고
나무숲의 가장 높은 나무가 가장 바람이 잘 드는 법.
성상의 교시에서 쟁반의 촛불을 비유로 드신 것을 보니
산의 얼굴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한가지 이치로다.

84) 朱熹의 「賦梅」에 나온다. 시는 다음과 같다. “그대가 매화로 시를 짓고자 하나, 매화를 어찌 시로 짓겠나. 수천 번 매화를 둘러보았으나, 한마디도 쓸 수가 없었네(君欲賦梅花, 梅花若爲賦. 繞樹百千回, 句在無言處.)”라고 했다.

萬二千峯曉靄籠，遙看火傘上層空。輕嵐乍辨依微鶴，瑞旭先隨縹緲鴻。
羅立峭峯眞上界，森排削壁亦神工。冰雕玉琢皆殊狀，雲豁天開有最崇。
直抵嵎夷羲仲宅，平連滄海玉龍宮。兩儀高下須臾曙，萬國光明次第通。
炯晃平巒收積翠，飛騰絕頂見初紅。那緣造化分先後，自是崢嶸有上中。
樓外層樓先得月，樹間高樹最生風。還看至教喻盤燭，山面人心一理同。

조물주의 공덕은 갖지만 산봉우리의 높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침해를 보는 것에 선호가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성상의 군은은 균등하지만, 재덕의 차이에 따라 신하 가운데 은충을 받는 것에 선호와 고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IV. 『학서집』 미수록의 응제(應製)

정조 연간 초계문신의 시제(試製) 문체로는 논(論)·책(策)·서(序)·기(記)·설(說)·의(議)·변(辨)·제발(題跋)·자문(咨文)·주문(奏文)·표(表)·전(箋)·계(啓)·조(詔)·제(制)·고(誥)·반교문(頒敎文)·교서(敎書)·비답(批答)·노포(露布)·격(檄)·상량문(上梁文)·잠(箴)·명(銘)·송(頌)·찬(贊)·배율(排律)·율시(律詩)·고시(古詩)·부(賦)[율부(律賦)] 등이 있었다. 학서는 초계문신 응제의 문체 가운데 두 편의 전(箋)을 문집에 남겼다.

- ㉑ 1794년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며 노인 75,100여 명의 나이를 합하여 5,898,200여 세가 되는 것을 기념하여 『인서록(人瑞錄)』을 편찬했을 때, 진수전(進壽箋)을 의작(擬作)했다.⁸⁵⁾
- ㉒ 1797년 2월 10일(신사) 『향례합편(鄉禮合編)』이 간행된 이후 진전(進箋)을 의작했다.⁸⁶⁾

이 가운데 ㉒ 「본조 주자소에서 향음의식 및 향약조례를 올리면서 작성할 진전에 의작하다[擬本朝鑄字所進鄉飲儀式鄉約條例箋]」은 1797년(정조 21) 정조의 명으로 각신 이병모(李秉模) 등이 향례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향례합편(鄉禮合編)』을 편찬하자 그 기념으로 정조가 제작하도록 명하여 응제한 것이다. 1795년(정조 19, 을묘) 모친 혜경궁 홍씨의 탄신일을 맞이한 정조는, 연장자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향촌의 상하질서가 유지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백(方伯)과 유수(留守)에게 운음(綸音)을 반포했다. 『향례합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33질이 소장되어 있다. 정유자본은 3권 2책으로 묶여져 있다. 권두에는 정조의 「어제양노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주례향약운음(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西禮鄉約綸音)」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향음주례, 향약을 행

85) 柳台佐, 「擬本朝人瑞錄老人七萬五千一百餘人, 進壽五百八十九萬八千二百歲箋[抄啓應製]」, 『鶴樓集』 권11 箋.

86) 柳台佐, 「擬本朝鑄字所進鄉飲儀式鄉約條例箋[抄啓應製]」, 『鶴樓集』 권11 箋.

한 고사와 이 책을 간행하게 된 경위를 쓴 「향례합편총서(鄉禮合編總敘)」가 있다. 권1에는 ‘향음주례’(鄉飲酒禮), 卷2에는 ‘향사례(鄉射禮)’, ‘향약(鄉約)’, 卷3에는 ‘사관례(士冠禮)’·‘사혼례(士昏禮)’에 관한 역대 문헌의 자료를 실었다.⁸⁷⁾ 사실, 『향례합편』은 향전(鄉戰)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도 없고, 양반과 농민이 서로 구제하는 방안도 담아내지 못했다. 정약용은 『향례합편』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이 책의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옛 예가 너무 번거로우므로 우리 정조대왕께서 친히 『향례합편』을 만들어 군현에 반포했으나 그 의식이 도리어 번잡하고, 『오례의(五禮儀)』에 실린 것은 그 글이 너무 간략하여 모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의주(儀注)를 낸다.⁸⁸⁾

학서의 ⑥ 「본조 주자소에서 향음의식 및 향약조례를 올리면서 작성할 진전에 의작하다(擬本朝鑄字所進鄉飲儀式鄉約條例箋)」은 이른바 ‘가세법’을 철저히 지켰음을 알 수 있다. 1795년 정월 초에 윤음을 내린 것을 언급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찬송(讚頌)으로 흘렀다.

聖人觀萬民設教，方仰漸摩而成.	教-측, 成-평
大易用貳篇爲儀，敢陳節目之備.	儀-평, 備-측
禮行一日，風動四方.	日-측, 方-평
竊惟先王先聖之治，實由鄉飲鄉約之制.	治-평, 制-측
庠門開四面之坐，興禮讓於主席賓階.	坐-측, 階-평
司徒敷六行之要，敦熙俗於夏校殷序.	要-평, 序-측
蓋其貴賤明而隆殺辨，可見人能孝恭.	辨-측, 恭-평
亦惟德業勸而過失規，所貴里有仁厚.	規-평, 厚-측
懿聖上察倫明德，而至治以禮齊民.	德-측, 民-평
闡箕聖宣八政之猷，非無尙禮義之美.	猷-평, 美-측
贊仁廟譯五倫之化，克軫敦風教之謨.	化-측, 謨-평
致億兆觀感之休，固仰上行而下效.	休-평, 效-측
稽度數節文之盛，尙慮古有而今無.	盛-측, 無-평
肆軫三古之挽回，特命兩書之蒐錄.	回-평, 錄-측
元朝頒十行之詔，咨汝方伯帥臣.	詔-측, 臣-평
儀文煥一代之治，暨爾僻壤窮巷.	治-평, 巷-측
觀政在朝觀俗在野，誕敷禮法之修明.	野-측, 明-평
立主象地立賓象天，更申約條之勸勉.	天-평, 勉-측

87) 권말에는 편집 참여 신하들의 명단이 있다. 즉, 李秉模를 비롯하여 尹蕃東, 閔鍾顯, 沈煥之, 徐龍輔, 李始源, 徐有渠, 崔光泰, 黃基天 등의 명단과, 監印에 李晚秀의 직함과 이름이 차례로 실려 있다. 권말에는 「鄉禮合編總敘」와 鑄字跋이 있다. 윤시동과 민중현 등이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찬을 주도한 사람은 徐有渠이다. 정명현·민철기·정정기(역), 『임원경제지-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12.

88) 『牧民心書』卷7, 「季秋行養老之禮，教以老老，孟冬行鄉飲之禮，教以長長，仲春行饗孤之禮，教以恤孤」

玆完剗剗之役, 敢效獻御之忱.	役-측, 忱-평
惟尊賢養老之規, 三豆四豆.	規-평, 豆-측
若導民糾俗之典, 六條八條.	典-측, 條-평
夫既燕不亂而和不流, 可知王道易易.	流-평, 易-측
亦能善必行而過必改, 庶見民俗居居.	改-측, 居-평
是所謂成教之可安, 豈但曰大信之不約.	安-평, 約-측
淳風回泰階之象, 間歌合樂之復聽.	象-측, 聽-평
帀域頌比屋之休, 崇禮立教之賁化.	休-평, 化-측
文足以徵也, 取攷三代典章.	也-측, 章-평
民可使由之, 揭示八路州郡.	之-평, 郡-측
恭惟道協敷五, 治邁約三.	五-측, 三-평
治謨著郁郁之文, 咸仰經天地而紀日月.	文-평, 月-측
休俗躋于于之世, 克驗家詩禮而戶絃歌.	世-측, 歌-평
伏念臣等,	
銛梓末官, 獻芹微悃.	官-평, 悃-측
一勺蠡海, 縱乏藝諫之姿.	海-측, 姿-평
三終鹿鳴, 庶效升歌之頌.	鳴-평, 頌-측

『일성록』을 보면, 1794년(갑인, 정조 18) 11월 23일(정미) 내각에서 초계 문신이 지난 10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를 행하고, 겸하여 가을 석 달 동안의 과강(課講)과 11월의 과시(課試)를 행했다. “본조의 내각에서 『어정주서백선』을 인쇄하여 올리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으라.[擬本朝內閣印進御定朱書百選]”로 전제(箋題)를 삼았는데,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있던 학서가 이하(二下)로 수석을 차지했다. “잠 못 들고 자물쇠 소리 듣는대不寢聽金鑰”로 부제(賦題)를 삼아 갱시(更試)를 보이게 했는데, 100구에 준하는 글을 지어 올렸다. 갱시에서는 승문원 권지부정자 황기천(黃基天)이 삼중(三中)으로 수석을 차지해서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1질(秩)을 사급받았다. 학서는 갱시에서는 수석을 하지 못했으나 친시에서는 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학서집』에는 당시의 과전(科箋)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학서는 초계문신으로서 시 이외의 여러 문체로도 응제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箋) 이외에는 명(銘)의 문체인 「고명(觚銘)」만 문집에 남아 있다.⁸⁹⁾ 정약용도 『여유당전서』에 「고명(觚銘)」에 남기고 있는데, 협운(協韻)을 이용했다.⁹⁰⁾ 학서의 「고명」은 다음과 같다.

고(觚)가 있구나 고(觚)가 있구나
 땅의 네모꼴을 본떴구나.
 먹줄도 따르고 먹도 따르니,

89) 柳台佐, 「觚銘」, 『鶴棲集』 권1.

90) 丁若鏞, 「觚銘」, 『與猶堂全書』 제1집 제12권 銘. “一日之節在器, 百年之節在志. 器濫則出, 【去聲】志荒則辭.”

덕의 빛나는 형상을 본뵈구나.
 사물을 재어서 혈구로 삼고
 응수하여 잉첩이 되누나.
 고(觚)를 기준으로 마음을 지니고
 고(觚)를 기준으로 행실을 제어하라.
 고(觚)여 고(觚)여
 군자가 너를 숭상하는도다.

有觚有觚，象地之方。從繩從墨，象德之章。
 絜而爲矩，酬而爲脰。觚以持心，觚以制行。
 觚哉觚哉，君子是尙。

『일성록』이나 『내각일력』에 따르면 당시 초계문신에게 시 이외에 여러 문체를 부과했고, 기록상 학서도 참여한 일이 많다. 또 규장각의 친시 및 과시에 응제한 경우 12월 각과(閣課)가 끝나면 도계획(都計劃)에 따라 친시와 과시 각각의 과차(科次)에 따라 차등 있게 시상을 했다. 그럼에도 『학서집』에는 학서가 갱화하거나 응제한 시문 가운데 시의 일부 이외에, 다른 문체라고는 전(箋) 2편과 명(銘) 1편만 수록했다. 이 사실은 부록 표 「1794년부터 1800년까지 초계문신 과시(課試) 실시 상황」을 참고로 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학서는 정조의 문학 진흥에 대해 감격해 하면서도 과시의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하지 않은 듯하다.

물론 학서는 정조가 신하들에게 학문을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송했다. 이를테면 학서는 초계문신 김희락과 더불어 정조가 하사한 『문신강제절목(文臣講製節目)』을 수상하여 감격해서 다음 한 수를 지었다.

내사하신 절목 한 책을 삼가 수령하고 김숙명(희락)과 함께 감동하는 바가 있어서 읊시 한 수를 짓
 다(祇受內賜節目一冊與金叔明(熙洛)感賦一律)⁹¹⁾

신선 세상에서 어떤 뜻으로 초야 신하를 생각하여
 사심 없이 시우(時雨) 내려 주시니 품물마다 새롭구나
 하늘 위 붉은 구름은 궁궐에 드리우고
 규장각의 서책들은 벼슬아치를 경계하네.
 문을 겸하고 무를 겸하여 규모가 원대하고
 초하루마다 열흘마다 과시를 친히 점검하시네.
 규장(奎章)이란 전서(篆書)가 밝게 빛나니
 천추만세토록 자손들이 진장(珍藏)하기를.

蓬瀛那意草萊臣，時雨無私物物新。天上紅雲垂禁籙，閣中黃卷警簪紳。

91) 柳台佐, 「祇受 內賜節目一冊與金叔明(熙洛)感賦一律」, 『鶴棲集』 卷1.

兼文兼武規模遠，呈朔呈旬照檢親。寶篆煒煌奎閣字，千秋留作子孫珍。

하지만 학서는 정조가 『어정육주약선』, 『어정주서백선』, 『사기영선』 등 선집(選集)이나 초집(抄集)을 편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교(文教)의 진작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고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간편함을 추구하게 만들까 걱정스럽다고 정조에게 의견을 말했다.

장경부에게 답한 편지(答張敬夫書)에, “제왕의 학문은 일반 선비들과는 다르다.” 했는데, 신 류이좌는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치를 궁구한 뒤에 마음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바라는 要訣은 학문 강론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문장이나 외우고 억지로 글의 뜻을 찢어 대는 식이라면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원집(原集)에 비점(批點)과 권점(圈點)을 찍어 초록하고 선집(選集)하신 일은 글의 깊은 맛과 뜻을 섭취하여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활요(撮要)를 만들어야겠다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후세에 이 책을 보는 사람이 혹 한갓 간편함만 좋아한다면 장남헌(張南軒)[장식(張栻)]이 인(仁)을 말한 대목들을 유취(類聚)한 것이 혹 학자들로 하여금 지름길을 좋아하고 속성(速成)을 바라는 마음을 열지나 않을까요?⁹²⁾

학서의 지적에 대해 정조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다.

비점과 권점을 찍어 초록하고 선집한 책의 간편함이 폐해가 된다는 것은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박학 하되 약례(約禮)한다는 취지의 일단을 첨부하고자 하니, 학자들이 이 뜻을 알아서 말로써 뜻을 헤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가 현재 눈앞의 일을 끄집어내어 질문을 하니, 가상하고 가상하다. 특별히 녹비(鹿皮) 한 벌을 하사하여 모호한 말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분발케 하노라.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만 못하여 거편(巨편)이나 대질(大軼)을 백 번 천 번 독송하기란 형세상 참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현재 시의(時宜)에 맞게 초저하는 방도로는 간편한 바에 나아가 많이 읽기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의 의미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⁹³⁾

본래 학서는 부화(浮華)함을 배격하고 자득(自得)의 실공(實工)을 중시했다. 「경차선조졸재선생구수시운(敬次先祖拙齋先生九首詩韻)」은 6대조 류원지(柳元之)의 유훈시(遺訓詩)에 차운한 연작인데, 돈목(敦睦), 자수(自守), 섭세(涉世), 산거(山居), 자책(自責), 권학(勸學), 독서(讀書), 자성(自省)을 강조했다.⁹⁴⁾ 이러한 정신태도에서 보면 정조가 초계문신에게 경화를 요구하고 친시나 과시를 통해 각종 문체의 연마를 강요한 것은

92) 柳台佐, 『鶴棲集』, “「答張敬夫書」曰: 帝王之學與, 韋布不同. 臣台佐謹. 按窮理而后, 可以正心, 則正心之要, 莫先於講學. 然記誦割裂, 反或有害. 我殿下批圈. 選之工, 蓋出於咀英嚼華撮要便覽之盛意, 而後之覽此者, 或徒以便爲喜, 則張南軒之類聚言仁, 無或啓學者好徑欲速之心乎?”

93) 『弘齋全書』 권131, 「故寔」 3, 〈朱子大全〉 2, 甲寅. “批圈鈔選之簡便爲弊, 爾言是矣. 竊附博而約之一端, 學者知得此意, 不以辭害義可也. 爾能拈出目下事爲問, 可嘉可嘉, 特賜鹿皮一領, 以勵諸人之含糊者. 今人不若古人, 鉅篇大軼之千百遍誦讀, 勢誠難能. 目今時措之方, 莫過於就簡處多遍數. 予之微意, 政亦在是.”

94) 柳台佐, 「敬次先祖拙齋先生九首詩韻」, 『鶴棲集』 권1.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조의 초계문신 제도는 정치 이념을 확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제술의 부과는 초계문신의 학문 진작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면이 있었다. 정조는 재위 8년(1784) 삼일제(三日製)에서 책제(策題) 「문체(文體)」를 내걸어 문체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위 13년(1789) 초계문신 친시에서도 「문체」의 책제를 내어 명말청초 소품문을 비판했다. 정조는 당시의 문체가 대소사명(大小詞命)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문체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팔자백선(八子百選)』, 『주자서(朱子書)』,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 『시관(詩觀)』, 『아송(雅誦)』, 『두율분운(杜律分韻)』, 『육율분운(陸律分韻)』 등을 어정(御定)하거나 명찬(命撰)했다. 재위 14년인 1790년(경술) 4월 24일(갑술), 정조는 초계문신 과시(課試)의 시권을 채점했다.⁹⁵⁾ 과시는 전(箋)의 문체를 부과했고 제목은 「본조의 초계문신 등이 강경(講經)에서 불(不)을 맞고 제술에서 외(外)를 맞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특별히 수문장에 차임하여 낮에는 문을 지키고 밤에는 독서하게 한 데 대해 사례하는 것으로 의작하리(擬本朝抄啓文臣等 謝不治講不製外之罪 特差守門將 使晝監門夜讀書)」였다. 부사과 송상렴(宋祥濂)·윤영희(尹永僖), 전 검열 정약용이 삼하(三下)로 등급이 같았으므로, 정조는 비교를 명했다. 세 사람은 네 번에 걸쳐 비교의 제술을 해야 했다. 정조가 내건 전제(箋題)들은 다음과 같았다.⁹⁶⁾

재시 「본조의 내각에서 『일득록』을 올리는 것으로 의작하리(擬本朝內閣 進日得錄)」

3시 「본조 묘당의 신하가, 여러 도의 환곡을 가지고 산간 고을에서 모아주고서 연해 고을에 보태주는 정사를 행하여 탐오의 풍조가 점차 종식되고 민폐가 제거되게 하도록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리(擬本朝廟堂臣 請以諸道還穀 行哀峽益沿之政 俾貪風稍息民弊祛甚)」

4시 「본조의 묘당이,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에서 보미를 함부로 받는 것을 금하여 6두를 바친 자로 하여금 원래의 정식 외에 더 바쳐 절제가 없게 되는 고질적인 폐단을 면하게 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리(擬本朝廟堂 請禁兩營保米濫捧 使六斗納者 得免元式外加納無節之積弊)」

5시 「본조의 초계문신 등이, 과제에서 백성과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경제 관련 글을 시험하고 과강(課講) 때에 한자의 중국 음을 간간히 시험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리(擬本朝抄啓文臣等 請於課製試經濟文字之有補於民國者 課講間試華音)」

비교시의 4개 전제(箋題)들로 볼 때, 첫째, 정조는 내각 각신들에게 『일득록』을 충실하게 편찬하여 통치행위의 거울로 삼고자 했고, 둘째, 환곡 제도를 정비해서 산간과 연해 고을의 빈곤을 구제하고자 했으며, 셋째, 보미(保米)를 여섯 말로 정하여 군비를 확보하고 수령의 남장을 억제하고자 했다. 넷째로, 초계문신의 과제(課製)에서는 경제에 관한 글을 시험하고 과강(課講)에서는 한자의 중국 음을 시험해서 경문의 원의를 이해하는데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 주제들은 정조가 현실의 정치, 경제, 경학, 문학을 나름대로 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음을 잘 말해준다. 하지만 정조가 전(箋)의 문체로 답안을 제출하도록

95)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건륭 55) 4월 24일(갑술) 조항.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번역문 참조. 이하 『일성록』의 번역문 인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국고전번역원 제공의 번역문을 이용함.

96)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 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

시킨 것은 실질 방안을 청취하는 데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실상, 정조의 제술 부과가 반드시 문체 변혁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정약용의 경우를 보면, 초계문신 시절 어제 책문(御題策問)에 대한 대책(對策) 작성을 통해서 학문·지리·경제·정치 각 방면에 걸쳐 기초지식을 축적했으면서도, 초계문신 시절의 제술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특히 사육문의 응제문은 모두 폐기했다. 즉, 정약용은 28~29세 때인 1789년과 1790년 초계문신으로서 친시에서 「십삼경책(十三經策)」·「문체책(文體策)」·「논어책(論語策)」·「맹자책(孟子策)」·「중용책(中庸策)」·「인재책(人才策)」·「농책(農策)」 등의 대책(對策)을 작성하면서 스스로의 학문방향과 방법을 형성했다. 또한 정조가 재위 13년(1789, 기유) 윤5월 초계문신 및 각신들을 대상으로 「지세(墜勢)」의 책제를 내걸었을 때, 초계문신이었던 정약용은 상고시대부터의 국토 범위를 상정하고 외침에 대비해서 지방행정 제도와 국경 수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지방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지방의 물산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본과 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울릉도(鬱陵島)와 손죽도(損竹島)에 대한 공도(空島) 정책을 포기하고 그곳에 보루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 다른 응제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답안이었다.⁹⁷⁾

하지만 정약용은 1796년(정조 20) 12월 25일(병신) 『어정사기영선(御定史記英選)』에 간략한 주를 붙인 후 「본조곡산부사정약용진사기영선찬주(本朝谷山府使丁鑄進史記英選纂注)」의 전(箋)을 작성했으나,⁹⁸⁾ 자신의 『열수전서(洌水全書)』에 수록하지 않고 ‘후회를 기록하는’ 『열수문항(洌水文彙)』에 제쳐두었다.⁹⁹⁾ 즉, 1826년(순조 26) 명동에 정약용은 생원시 급제 후 6년 동안 성균관에서 제작하고 또 초계문신 과시(課試)에서 제작한 표(表)·전(箋)·조(詔)·제(制) 등 460수를 『열수문항』 3책으로 엮었다. 그런데 그 제목은 『시경』 「교언(巧言)」의 “교묘한 말이 황과 같은 자는 얼굴이 두껍도다.[巧言如簧, 顔之厚矣]”라는 말에서 따왔다. 요컨대 변려문을 모두 ‘교언’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서명을 ‘문항’이라고 한 이유도 ‘후회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¹⁰⁰⁾ 정조의 학술사상에서 자양분을 많이 흡수했던 정약용이 정조의 학술 기획을 통렬하게 비판한 셈이다.

정조의 학문이념은 한 시대의 문제를 반영하는 밀도를 지니고 있었고 한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킬 만한 동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학문이념의 실천 방법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학서에게 정조의 학

97) 심경호, 『정약용의 국토 사랑과 경영론』, 국토연구원, 2011.

98) 丁若鏞, 「本朝谷山府使丁鑄進史記英選纂注」, 『與猶堂全書』 補遺○洌水文彙 中.

99) 科表 등의 형식에 대해서는 김동식,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논문, 2013.6 참조.

100)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洌水文彙, 自序. “文之有駢儷之體, 非古也. 古蓋有自然之儷, 不苟合也. 六朝之綺, 關奇以逞巧, 此體漸熾. 王·楊·盧·駱, 遂大門口. 自宋以來, 凡賀正·謝恩之表, 命官·封爵之誥, 咸用四六. 蘇·鐸·汪·洪, 亦以名世. 吾東則崔·李炳朗於前古, 蔡·鄭瞻炙於近世. 唯明陵盛際, 林·趙·兩李諸家, 蔚然並興, 雖俯趁時規, 不拘拘於格律, 而洵滌鄙俚, 曲盡情禮, 有足以潤色絲綸, 倡率旗鼓, 不可少也. 余自弱冠之初, 則沈淫於此. 及登上庠, 六年於泮宮之試, 旋忝甲科, 三年於內閣之課. 累荷先大王推獎之渥, 批評隆重, 錫賁便蕃. 於戲, 其榮矣! 余今老將死, 舊稿叢殘, 有足悲者. 令兒輩蒐輯散軼, 萃爲一部, 表·箋·詔·制等雜體共四百六十首, 分爲三冊, 題之曰洌水文彙. 文彙者何? 志悔也. 駢儷之文, 雖亦人各殊詣, 要之皆巧言也. 『詩』云巧言如簧, 斯非文中之簧乎? 『書』稱孔王, 巧言, 孔子曰巧言鮮矣仁, 又曰木訥近仁, 聖人之無取乎巧言, 如是矣. 夫五六年單精竭慮, 作巧言累千萬, 以示其子孫諸友, 可不悔哉? 後世以若藻繪之文, 名之曰貢飾笙鏞. 夫笙之爲笙, 以有簧爲之舌也. 俳言之, 則笙鏞之飾也, 莊言之, 則巧言之悔也. 後之覽是編者, 其知余多悔哉?”

문 기획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의식이 있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학서는 수석을 차지한 시문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수습해 두지 않은 것을 보면, 특히 표전(表箋)이나 율부(律賦)의 문제는 정리해 둘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문집에 남겨 둔 전(箋) 2편은 서적 편찬과 관련된 것이어서, 취실(就實)의 성격이 짙기 때문일 것이다.

V. 맺는 말

학서는 1803년 북평사로 있을 때 향시 초시를 주관하여, 25세의 함경도 경성(鏡城) 출신의 윤대순(尹大淳, 1779~1865) 등을 뽑았다. 윤대순은 뒤늦게 학문에 전념하여 김창협(金昌協)에서 이재형(李載亨) - 이원배(李元培)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했는데, 『활수옹유고(活水翁遺稿)』를 남겼다.¹⁰¹⁾ 1820년(순조 20) 학서는 김해부사로 부임하여, 양사재(養士齋)가 폐허가 된 것을 보고, 공진문(拱辰門) 밖 향교 아래로 양사재를 옮겨 확장하여 지었다.¹⁰²⁾ 학서는 「시학성제성(示鶴城諸生)」의 소서에서 선비들이 거업(學業)에 골몰하지 말고 『근사록(近思錄)』같은 책을 읽어 도학을 강론하고 예의를 익힐 것을 강조했다.¹⁰³⁾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학문 함은 궁리에 달려있고
책 보는 일은 정성 다함을 귀하게 여기네.
음독(音讀)하고서 이해했다 말하지 말라
근사(近思)의 이름을 체득해야 하리라.

爲學在窮理，看書貴致精。休言音讀解，須體近思名。

만년의 학서는 여러 남인 학자들의 문집의 간행과 편찬에 간여했다.

1824년(순조 24)년에는 체제공의 『번암집(樊巖集)』을 간행하는데 참여했다.¹⁰⁴⁾ 1831년(순조 31) 69세로 동경연(同經筵), 동돈녕(同敦寧), 동의금(同義禁)이 되었는데, 겨울에는 정경세(鄭經世)의 연보(年譜)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간행하려 했다. 1835년(헌종 원년) 73세로 부총관이 된 해에는 『기송록(記誦錄)』

101) 장유승, 『『活水翁遺稿』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13.

102) 柳台佐, 「金海養士齋移建記」, 『鶴棲集』 卷10.

103) 柳台佐, 「示鶴城諸生 在安邊時」, 『鶴棲先生文集』 권1. “鶴城之進學所，每年冬設接試士。余謂學業，末藝也。改試爲課，通讀一經，何如。與選諸生咸曰，近思錄儘好。遂設會十五日，而了四冊盛事也。然學原於思徒，讀而不思，何益之有哉。況是編之名，以近思，尤當讀而思，思而復讀，然後可諸君其勉矣夫。”

104) 학서는 1818년(순조 18) 체제공을 신원하기 위한 疏를士林을 대표하여 작성하기도 했다.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卷3, 「請樊巖蔡文肅公伸理疏 代士林作○戊寅」. 蔡濟恭 사후 丁若鏞과 李家燾이 遺稿를 수습하여 校正했고, 正祖가 御定凡例를 내려 이에 따라 문집을 再編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고 남인 계열의 인물들이 다수 숙청되면서 체제공의 관직이 추탈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伸寃되었으며, 1824년(순조 24) 마침내 학서가 『번암집』 간행을 주관하여 鳳停寺에서 판각하고 판목을 보관하게 했다. 김경희, 『『樊巖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과 『공경편(恭敬編)』을 엮었다. 75세 되던 1837년(헌종 3) 가을, 도산서원에서 이황의 문집을 중간할 때 동주(洞主)에 추대되어, 미간의 12권을 찾아내어 함께 간행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¹⁰⁵⁾

또한 학서는 문중 학자들의 문집을 정리하고 간행하는 일에도 공을 들였다. 즉, 1808년(순조 8)에는 종선조 파산(巴山) 류중엄(柳仲淹, 1538~1571)의 유고를 정리하여 문집을 간행했다. 1833년(순조 33)에는 류운룡(柳雲龍)의 증손으로 류원지(柳元之)의 문인이었던 우현(寓軒) 류세명(柳世鳴, 1636~1690)의 문집을 간행할 때 주관했다. 1836년(헌종 2) 9월에는 류규의 『임여재고』를 교정했다.¹⁰⁶⁾

학서의 자신의 도문학(道問學)과 존덕성(尊德性)을 일생 추구했다. 다음 두 편은 그의 내면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해 서술한대(自述)

이 몸은 이를 것이 없어
게으르게 세월을 허송한다.
발 경작은 늘 절도를 어기고
책 읽으면 곧 잠들고 만다.
마음을 쉬니 비로소 체득함이 있고
분수에 안주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니,
먼지세상의 일일랑 묻지 않으리
맑은 강이 눈 앞에 있으니.

此身無可做, 疎懶送流年. 藝畝恒違節, 看書輒就眠.
休心方有得, 安分最爲先. 不問塵寰事, 澄江在眼前.

내가 한 그루 분매를 키워 여름에는 동산에 두고 겨울에는 밀실에 갈무리하는 등 아주 근심하게 힘을 기울였건만 십년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않기에 북돋워주는 방도가 적절치 못했던 한 것이 아닌가만히 한탄했더니, 병신년(1836년) 원일 다음 날 홀연 마른 등걸의 한 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져 그윽한 향기가 문득 일어나므로 그를 위해 절구 한 수를 짓는다[余種一株盆梅, 夏置園中, 冬藏密室, 用力頗勤, 十年而不花, 竊自恨培壅之失宜, 丙申元朝翌日, 忽見枯查上一枝花, 暗香初動, 爲賦一絕]

남쪽 동산의 나무 심는 집에 봄이 이르자
십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지 하나의 꽃을 보네.
선달이라 멋진 만남이 너무 늦었다 말을 말게
운격이 맑고 소탈하여 마른 그림자가 빗기는 길.

105) 柳台佐, 『鶴樓集』 卷21, 「行狀」. “丁酉秋, 陶山書院重刊文純公文集, 士林再薦公爲洞主, 公搜未刊文字十二卷擬并刊, 未果.”

106) 柳台佐, 「丙申九月, 校臨汝齋稿, 李雲谷又文[義發來會, 余與尙書從兄·高城弟·大諫姪·士慶·聞瑞·而鎮·教睦, 同往玉淵, 泛舟沿洄, 又文呼四韻二首, 忘拙續紹」, 『鶴樓集』 권2; 김성애, 「『臨汝齋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12.

春到南園種樹家，十年今始一枝花。莫言臘後佳期晚，韻格清疎瘦影斜。

학서는 스스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없어 게으르게 세월을 허송했다고 자책하고, 다만 맑은 강에 시선을 주며 분수에 안주한다고 했다. 그리고 늙어서야 매화와도 같은 격조를 갖추 지니게 되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1837년 11월 26일 학서가 화경당(和敬堂)에서 타계한 후, 현종은 예조정랑 이용민(李容敏)을 보내어 다음 제문(祭文)을 영전에서 읽어 애도하게 했다.

류령(惟靈)은 퇴계의 학통이 이어지고, 서애의 덕업이 성대하여, 교목이 꽃을 펼쳐 팔엽(八葉)[서애의 8대손의 경사에 미쳤네.…… 임금의 근신(近臣)으로 예원에 이름이 빛났으며, 옥서에 임명되어 경서를 끼고 세자시강원에 출입했네. 『규화명선(奎華名選)』에 강제(講製)가 실리고, 임금의 총애가 융숭했으며, 『주자백선』을 하사받아, 선왕의 뜻을 체득하고 연찬했네. 문학과 정사로, 전후에 은혜가 두터웠으며, 외방 고을 맡아 부모 봉양 완수하고 치적 이뤘 청송이 넘쳐났네.…… 재주와 학문을 펴지 못하고, 어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가? 암서[퇴계선생이 강학하던 암서헌]와 옥연[서애선생이 강학하던 옥연정]사이 심학(心學)의 유래된 곳이니, 편필(篇帙)을 존중하여 보위하노라니, 슬픔을 어이 견디랴?¹⁰⁷⁾

학서는 학문에서 실공(實工)을 중시했다. 정조의 학문 기획을 정면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초계문신 시절에 작성한 시문을 현시(顯示)하려는 의식은 없었다. 수석을 차지한 시문의 경우도 수습해 두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학서는 정조의 학문 기획이나 문체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참고문헌〉

1. 자료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웹DB, 유교넷.

柳台佐, 「壬子疏廳日錄」, 웹DB, 유교넷.

延安李氏, 〈쌍벽가〉, 화경당 소장.

『豊山柳氏世譜』, 豊山柳氏門中宗會, 2007.

『풍산류씨 충효당』, 한국국학진흥원, 2009.

『풍산류씨 화경당(복촌택)』, 한국국학진흥원, 2014.

화경당 소장 고문서.

『영조실록』

107) 柳台佐, 「柳台佐賜祭文」, 화경당 소장, 祭文 381. “惟靈, 陶山統承, 豊原業盛, 喬木男榮, 八葉延慶. ……邇班簪筆, 藝苑刻名. 玉署雷肆, 出入橫經. 奎華講製, 嘉獎彌隆. 考亭百選, 仰體磨礱. 文學政事, 前後恩紱. 專城養逢, 絃誦化溢. ……抱蘊未展, 何遽零落? 巖棲玉淵, 由來心學. 尊衛篇帙, 曷任傷盡?”

『정조실록』

『承政院日記』

『日省錄』

『內閣日曆』

金鍾秀, 『夢梧集』, 한국문집총간 245, 민족문화추진회, 1999.

徐命膺, 『保晚齋集』, 한국문집총간 233, 민족문화추진회, 1999.

尹愔,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256, 민족문화추진회, 1999.

李家煥, 『錦帶殿策』; 정선용 옮김, 『국역 금대전책』, 국립중앙도서관, 2011.

李德懋, 『靑莊館全書』; 『국역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80.

李晚秀, 『履園遺稿』, 한국문집총간 268, 민족문화추진회, 1999.

李書九, 『惕齋集』, 한국문집총간 270, 민족문화추진회, 1999.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2~7, 민족문화추진회, 1999; 『국역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0.

丁若鏞, 『(정본)여유당전서』, 다산학술재단, 2012.

蔡濟恭, 『樊巖集』, 한국문집총간 235~6, 민족문화추진회, 1999.

徐有渠(원저), 정명현·민철기·정정기(역), 『임원경제지 -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12.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유교넷, www.yukyo.net

한국고전번역원, <http://itkc.or.kr>

2. 논저

김경희, 「『樊巖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김동석,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논문, 2013.6. 성우, 「정조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 2012.

김성애, 「『臨汝齋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12.

김성우, 「정조대 영남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 2012, 184~186쪽.

김수현, 「하회를 품고 있는 화경당 이야기」, 『풍산류씨 화경당(북촌택)』, 한국국학진흥원, 2014.

김수현, 「鶴棲 柳台佐의 삶과 문학」, 『동양학』 6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6.

김학수, 「17세기 서예 류성룡가의 학풍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2014.

김형수, 「풍산류씨 충효당의 가계와 고전적」, 『풍산류씨 충효당』,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2009.

심경호, 『정약용의 국토 사랑과 경영론』, 국토연구원, 2011.

- 심경호, 「정약용 시문의 계년·호조를 통한 신 정보 제작 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등연구소 인문정신문화 연구센터 학술 심포지움: 21세기 다산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 - 다산 시대를 넘어서, 2015.12.22.(화) 10:00-18:30,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대회의실(B107호)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 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
- 이미진, 「正祖의 聯句詩 창작과 그 의미 - 弘齋全書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 41, 대동한 문학회, 2014.
- 이병훈, 「1800년에 작성된 풍산류씨 學稷案 해제」, 유교넷.
- 이수건, 「嶺南學派의 歷史的 機能과 그 限界」,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장유승, 「『活水翁遺稿』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13.
- 한국국학진흥원편, 『국역 조선후기 영남사림일기』, 2010.

* 이 논문은 2019년 4월 28일에 투고되어,
2019년 6월 17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7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7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Yu Ijwa's Interactive and the Responsive Poems by Royal Demands

Sim, Kyungho*

This article ascertains interactive poems and responsive poems by royal demands written by Hakseo Yu Ijwa, who was selected as a Kyujanggak official for lecture and composition in a regime of king Jeongjo. Also this article infers the reason for his interactive and responsive poems are hardly being included in his collection. Yu Ijwa's collection Hakseoseonsaengmunjip (Hakseojip) was woodblock printed around 1902,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ollection was based on his self-edited manuscript. The number of poems in the collection is small, and the second volume mostly contains memorial poems. Organizers and publishers of Yu Ijwa's posthumous arranged 8 pieces of interactive poems to Jeongjo and 15 pieces of responsive poems written in a royal exam for selected elite officials on the front. It is clear that publishers laid stress on his poems as a selected elite official. Through the poems, it is possible to apprehend proficiency, profoundness, and orientation of Yu Ijwa's poetry. However, compared to Ilseongnok, Naegagilryeok, and Ungokjip, interactive and responsive poems of Yu Ijwa is largely omitted in Hakseojip. Moreover, among responsive poetry and prose composed in royal exam and state exam, works beside poems are mostly not included in the collection, reserving only 2 pieces of royal dedicational documents and a piece of inscription. Yu Ijwa rejected a florid style and put stress on self-fulfillment in nature. According to his poem "Respectfully responding nine poems of my ancestor master Joljae", written in response to his 6th generation grandfather Yu Wonji's indoctrinational poem, usually Yu Ijwa thought sincerity, self-duteousness, an art of living, hermitism, self-reproach, encouraging learning, reading, and self-reflection as important characteristics. Also he stated his opinion to Jeonjo on publishing anthologies such as Eojeongyukjuyakseon, Eojeongjuseobaekseon, and Sagiyeongseon won't help learning, making descendants pursue convenience. A system of selected elite officials played major role in establishing political hegemony, however composition assignments blocked developing scholarship. Jeong Yakyong, for example, regretted what he wrote as a selected elite official and

* Professor, Korea University

asserted pianwen a florid words, containing most of his such works in Yeolsumunhwang to divide it from his proud collection. It is hard to affirm that Yu Ijwa had a harsh criticism of Jeongjo's study plan. However he did not have an intention to collect his composition such as royal dedicational documents or fu, even though it was top-graded.

[Key Words] Hakseo, Yu Ijwa, *Hakseojip*, selected elite officials, royal exam, examinational poetry, interactive poetry by royal demands, responsive poetry by royal demands, royal dedicational documents, Lee Huibal, Jeong Yakyong

부록

〈표〉 1794년부터 1800년까지 초계문신 課試 실시 상황

1794년 6월 13일	去五月朔課試書題題「九老會圖」·「三星圖」·「八道都圖」, 上梁文「華城城樓」·「得中亭」·「華清館」, 題副望上梁文, 首望落點 ●去五月朔課試榜(上梁文): 崔光泰·趙萬元·黃基天·曹錫中·柳遠鳴·柳台佐·李勉昇·李東萬·姜浚欽·尹致永·權峻題·吳泰曾·金熙洛
1794년 6월 23일	原任直提學金憲直提學徐龍輔率抄啓文臣設講會于內閣.
1794년 8월 27일	應製試券 考下. 賦의 曹錫中과 洪樂浚을 比較케 함. ●應製榜(箋): 崔光泰·吳泰曾·權峻·黃基天·徐俊輔·宋冕載·金近淳·李勉昇(賦)·曹錫中·洪樂浚·趙萬元·姜浚欽·李東萬·洪命周·金熙洛·尹致永·柳台佐·具得魯
1794년 9월 5일 (기축)	今九月初五日抄啓文臣去六月朔親試 ○熙政堂에서 日次儒生 殿講 및 抄啓文臣 親試·上齋生 應製. 詔題「擬漢命列侯諸將毋敢隱朕各言其情」·賦題「謂公暨暨公來于于」. ○更試御題賦「好飭千官待有秋」·表「擬皇明進士等謝每當試士之日輒於禁中親製其題以我不當壯元及第」, 限申初.
1794년 9월초 6일	更試御題「眉州遠景樓上櫟文取價衆之人錢作樂醉飽」·限明日申時.
1794년 9월초 9일	抄啓文臣親試 御題「擬六國群臣賀從合箋」 ●新舊選親試榜: 崔光泰·徐俊輔·權峻·曹錫中·姜浚欽·安廷善·黃基天·金近淳·李東萬·柳遠鳴·吳泰曾·丁若鏞·李弘達·柳台佐·尹致永·嚴耆·李勉昇·具得魯·申星模·沈鑒·宋祥謙·尹寅基·尹持訥·宋知謙·丁若銓·尹行直·韓耆裕·閔致載·趙萬元·洪樂浚
1794년 10월초 7일	諸道民事로 朔課之抄啓講試를 못했는데 16일 儒生 日次殿을 初九日에 春塘臺에서 행하고 去六月朔七月朔課講도 병설하라 명함
1794년 10월 9일 (계해)	春塘臺에서 초계문신 課講, 日次儒生 殿講, 上齋儒生 應製, 專經文臣 전강, 文臣製述, 表題「擬唐淮西士女等謝於耕不食織不裳之餘賜以繒布左煖右粥」·賦題「黎民不饑不寒」. ●今十月初九日去六月朔課講榜(大學自傳七章至傳十章): 申絢一通二略略·徐俊輔二略一粗略·宋冕載一略二粗粗·金近淳純粗·洪命周純粗.
1794년 11월 17일 (신축)	초계문신 去七月親試. 表題「擬周大人進衆維魚矣實維豐年之占」.
1794년 11월 23일	親試百句賦題「不寐聽金鑰」“過限已久·尤爲駭然. 此題限以五更·使之限內製進事·判下.”
1794년 11월 24일	抄啓文臣去八月朔課講比較 御題五言四韻律詩「白馬驕不行」. 抄啓文臣十二月朔課試 御題賦「英姿颯爽來酣戰」. 課試都計劃比較 御題七言四韻律詩「輕寒不入宮中樹」. ●今十一月二十四日來十二月朔課試榜(賦): 李東萬·徐俊輔·姜浚欽·金熙洛·曹錫中·金近淳·李勉昇·宋冕載·柳台佐·申絢·尹致永·具得魯·洪命周·崔光泰·黃基天·權峻·柳遠鳴·吳泰曾·趙萬元
1794년 11월 27일 (신해)	春塘臺에서 초계문신 來十二月親試 箋文「擬內閣抄啓文臣等請於正至及慶節得與起居之列」. 黃基天이 三上으로 수석. 五言四韻律「大雪滿弓刀」과 五言四韻律「青驄馬」로 서너 사람 비교.
1795년(정조 19) 윤2월 26일(무신)	千五門에서 去一月抄啓文臣親試. 七言四韻律「蟠桃一朵獻千祥」·押千字. 黃基天·徐俊輔·李勉昇이 모두 二下이므로 比較. 七言四韻律「堯顙喜瞻天北極」·押天字. 이면승이 二下一로 거수.
1795년 4월 7일 (정해)	丹楓亭에서 新選舊選抄啓文臣親試 및 試射. 表題「擬漢群臣賀意豁如也」(西班牙)·賦題「意豁如也」(東班).
1795년 4월 8일 (무자)	초계문신 三月親試 試券을 考下.
1795년 4월 10일 (경인)	親試優等抄啓文臣 및 加抄文臣應製·御題「賴有此耳賦」. ●應製榜(賦): 申鳳朝·金處巖·崔光泰·洪爽周·金熙周·曹錫中·嚴耆·姜浚欽

1795년 4월 13일	抄啓文臣去三月朔課試 ●今四月十三日去三月朔課試榜(啓): 徐俊輔·崔光泰·權峻·嚴耆·曹錫中·黃基天·洪樂浚·李勉昇·宋冕載·尹致永(律賦)·金處巖·金近淳·申鳳朝·李東萬·洪命周(策)·洪奭周·吳泰曾·金熙周·金熙洛·姜浚欽·柳遠鳴·柳台佐·具得魯
1795년 4월 26일	以明日去正月四月朔專經文臣四月朔日次儒生殿講·親臨抄啓文臣進箋·上齋生製述儒生頒賞.
1795년 4월 27일 (정미)	『正始文程』을 上齋應製入格儒生에게 반사. 抄啓文臣四月朔親試와 專經文臣殿講. 賦題「何異太常妻」·詩題「羅浮夜半見赤波千萬里湧出黃金輪」(七言古詩나 排律). ●親試榜(賦): 曹錫中·權峻·申鳳朝·金熙洛·柳台佐·申絢·權知成均館學諭李勉昇·洪樂浚·李東萬. 更義盈庫直長金處巖(七言古詩): 具得魯·洪奭周·藝文館檢閱吳泰曾·司僕寺正崔光泰·黃基天·姜浚欽·徐俊輔·柳遠鳴. 更宋冕載·權知成均館·學諭尹致永, 外洪命周(七言二十韻排律): 嚴耆·金近淳
1795년 8월 14일 (임진)	摘文院에서 去二月親試, 賦題「沛公北鄉坐項王東鄉坐」·七言二十韻排律「項羽兵四十萬號百萬在鴻門沛公兵十萬號二十萬在霸上」.
1795년 8월 23일 (신축)	誠正閣에서 去正月朔課講. 辨題「理有善惡」·說題「才說性時便已不是性」.
1795년 8월 27일 (을사)	去二月課講 比較試券 考下. 說題「且取他長處」.
1795년 8월 28일 (병오)	去閏二月課講 比較 試券 考下. 賦題「同安聞鐘」.
1795년 10월 21일 (무술)	春塘臺에서 抄啓文臣試射·九月親試·策題「還餉」. 10일까지 제진.
1795년 11월 5일 (임자)	閏二月九月親試. 賦 수석 申鳳朝. 九月 親試에서 宋祥濂이 策 三中一로 거수. 閏二月親試는 申鳳朝이 二中으로 거수.
1795년 11월 11일 (무오)	一月課試 試券 考下. 說題「惟精惟一允執厥中」. 모두 外等.
1795년 12월 7일 (갑신)	抄啓文臣七月朔親試. 御題策「經術」
1795년 12월 11일	今十二月初十日抄啓文臣去六月朔親試在家製進 親臨考試 ●今十二月初十日去六月朔親試在家製進 親臨考試榜(致詞樂章七言長篇): 吳泰曾·具得魯·黃基天·洪奭周李東萬趙萬元權峻·曹錫中·柳遠鳴李勉昇司僕寺正崔光泰·尹致永宋冕載洪命周·金熙周七言律詩·申絢姜浚欽·金履永申鳳朝·洪樂浚·金近淳·金處巖·李英發·金熙洛·柳台佐.
1795년 12월 17일	九月朔課試 내일 실행. 九月朔課試書題望七言四韻律詩「老枝擎重玉龍寒」押龍·「雲裏帝城雙鳳闕」押雲·「陽春白雪曲」押春. 首望落點.
1795년 12월 18일	十一月朔親試 御題七言古詩「太虛爲室明月爲燭與四海諸公并處」押虛·賦「五相一漁翁」, 限申時, 自願製進 ○六月朔課試書題望五言四韻律詩「八駿圖」押圖·「文章接」押文·「龜船」押船. 首望落點·限人定 ○七月朔課試書題望五言四韻律詩「去作人間兩」押人·「鐵笛亭」押亭·「五曲山高雲氣深」押深. 副望落點·限二更 ○十月朔課試書題望七言四韻律詩「大樹將軍」押軍·「陳驚座」押驚·「趙倚樓」押樓. 首望落點·限明日開門時 ○十一月朔課試書題望七言四韻律詩「日中爲市」押中·「以雲紀官」押雲·「河出圖」押圖. 首望落點·限明日午時 ○十二月朔課試書題望七言四韻律詩「寬大書」押寬·「迎春東郊」押東·「洞庭春色」押春. 首望落點. 限明日申時.
1795년 12월 19일 (병신)	閣臣入直諸臣應製. 抄啓文臣親試課試. 十月親試賦題「顧而樂之行歌相答」. 六月課試五言四韻律「八駿圖」. 七月課試 五言四韻律「鐵笛亭」. 八月課試比較五言四韻律「五色筆」. 九月課試七言四韻律「老枝擎重玉龍寒」. 十月課試 七言四韻律「大樹將軍」. 十一月課試七言四韻律「日中爲市」.

1795년 12월 20일	春塘臺에서 抄啓文臣當朔親試 및 自四月至當朔課講. 五言四韻律詩題「春帖」韻自願. 限辰時.
정조 20년(1796) 1월 16일(계해)	明政門 親試, 試題「正月甲子奎開賦」.
1796년 8월 3일 (을해)	明政門에서 초계문신 親試와 문신製述. 초계문신 試題「擬金絲堂爲上樑文」, 문신 箋題「擬秦賀百里奚智」, 賦題「第四廳舍人」.
1796년 9월 17일	九日朔, 誠正閣에서 親試 및 課講. 表題「擬漢汲黯謝不問招之不來之罪」, 限午時. 不嫻四六者是 文으로 製進. ○抄啓文臣試券 考下. 모두 表題「擬漢汲黯乞不去」를 在家製進하라 명. ●今九月十七日去三月朔課講榜(論語自公治長止雍也): 申絢粗·洪奭周粗·黃基天粗·金履載粗, 以上背講倍劃, 徐俊輔不.
1796년 9월 18일 (경신)	去四月親試更試試券을 考下. 表題「擬漢汲黯乞不去」.
1796년 9월 19일 (신유)	四月朔親試再次更試書題. 抄啓文臣(班首)崔光泰承命出題, 七言四韻律詩題「不醉無歸」, 限一吸草.
1796년 10월 16일	明日抄啓文臣五月朔親試 ○正月朔課試長望, 排律落點. 二月朔課試長望, 敎書落點.
1796년 10월 17일 (기축)	熙政堂에서 抄啓文臣親試課講. 賦題「東都賓問於西都主人」, 表題「擬漢太史令司馬遷進帝紀以下三百篇」. 去四月去五月課講. ●今十月十七日去四月朔課講榜(論語自述而止泰伯): 洪奭周·徐俊輔·黃基天·金履載·申絢·姜浚欽·金近淳·洪命周(以上背講倍劃) ○今十月十七日去五月朔課講榜(論語自子罕止鄉黨): 徐俊輔·黃基天·洪奭周·金近淳·申絢·姜浚欽·洪命周·金履載(以上背講倍劃)
1796년 11월초 7일	今十一月初七日去五月朔課試榜 ●去五月朔課試榜(箋): 洪奭周·崔光泰·金履永·徐俊輔·權俊·金近淳·黃基天·柳遠鳴·吳泰曾·李勉昇·金處巖·金履載·洪樂浚·李東萬·宋冕載·曹錫中·姜浚欽·柳台佐·李英發·洪命周·申絢·趙萬元. ○去六月朔課試榜(箋): 金近淳 외
1796년 11월 17일	便殿에서 去七月朔親試·七月朔八月朔課講. 賦題「秦風如秋聲朝氣」, 限午時 ○去七月朔課試五言四韻律詩題「有草生庭」○去六月朔親試 七言四韻律詩題「單于夜遁逃」
1796년 11월 18일	春塘臺에서 新舊選抄啓文臣三月朔親試 및 射試. 策問題「南靈草」, 限明日門限製進. 九月朔親試 兼行令
1796년 11월 21일	八月朔課試書題望七言四韻律詩題「忽憶戴安道」落點 ○去正月朔親試更試七言十韻排律題「大雪」○二月朔親試再次更試「明德疑題」
1796년 11월 27일	今十一月二十日新舊選抄啓文臣去三月朔親試榜(策) ●新舊選抄啓文臣去三月朔親試榜(策): 崔光泰 외
1796년 11월 28일	去正月朔親試更試榜(七言十韻排律), 今十一月二十八日去二月朔親試更試榜(疑), 今十一月二十八日去三月朔親試更試榜(賦), 今十一月二十八日去四月朔親試更試榜(傳) ●去正月朔親試更試榜(七言十韻排律): 黃基天·曹錫中·金處巖·權俊·洪奭周·徐俊輔·申絢·洪樂浚·李東萬·金熙洛·宋冕載·姜浚欽·柳遠鳴·金熙周·李英發·李勉昇·洪命周·金近淳·金履載·柳台佐 ○去二月朔親試更試榜(疑): 申絢 외 ○去三月朔親試更試榜(賦): 權俊 외 ○去四月朔親試更試榜(傳): 徐俊輔 외
1796년 11월 30일	抄啓文臣八月朔親試比較題「兕觥銘」·「間似忙忙似間貴似賤賤似貴詞」, 竝限再明日開門時 ○今十一月二十九日抄啓文臣去十月朔親試榜(銘), 去六月朔親試更試榜(歌), 去七月朔親試更試榜(歌), 去八月朔課試比較榜(五言絕句), 同日再次比較榜(銘), 同日計劃榜, 課講榜(銘) ● 今十一月二十九日去十月朔親試榜(銘): 曹錫中 외 ○去六月朔親試更試榜(歌): 申絢 외 ○去七月朔親試更試榜(歌): 柳台佐 외 ○去八月朔課試比較榜(五言絕句): 徐俊輔 외 ○同日再次比較榜(銘): 權俊(句句佳作二倍劃三上) 외 ○同日計劃榜: 十七分權俊 외 ○課講榜(銘): 姜浚欽 외
1796년 12월 2일 (계유)	十一月朔親試. 箋題「擬晉樂鉞請攝飲子重」. 四六文 대신 文 제작 가능.

1796년 12월초 4일	抄啓文臣去八月朔親試更試比較榜(銘) ●今十二月初二日去八月朔親試更試比較榜(銘) : 曹錫中 · 金處巖 · 徐俊輔(詞) · 李勉昇 · 權俊 · 洪樂浚
1796년 12월초 10일	今十一月十八日 春塘臺에 親臨하여 新舊選抄啓文臣三月朔試射 設行
정조 21년(1797) 2월 10일(신사)	誠正閣에서 去正月親試, 箋題「擬本朝鑄字所進鄉飲儀式鄉約條例」, 洪奭周 三中으로 거수.
1797년 2월 28일 (기해)	春塘臺에서 春到記, 文臣製述, 專經武臣試射, 抄啓文臣親試. 箋題「楚晉卻至請蒙甲冑敢肅使者」로 초계문신 · 제술문신 · 유생 製進. 論題「牛千足」으로 제술문신제진. 초계문신은 箋題와 論題 중 자원 제진.
1797년 3월 24일 (갑자)	新舊 초계문신 親試 및 試射. 表題「擬漢群臣賀丞相曹參遊園中聞吏舍醉歌呼反取酒歌呼相應和府中無事」, 宋祥謙과 權俊이 三中이라 比較.
1797년 7월 1일 (무진)	七月朔親試는 試題로 재가제진케 함
1797년 8월 26일 (임술)	春塘臺에서 八月朔親試. 箋題「擬沛(漢)張良請使人先行爲五萬人具食」, 限申時.
1797년 8월 27일	八月朔親試試券 考下. 以「擬慕華館上樑文」爲比較題 ●今八月二十七日親試試榜(箋) : 黃基天 · 金處巖 · 洪奭周 · 吳泰曾 · 嚴耆 · 柳台佐 · 曹錫中 · 徐俊輔 · 宋冕載 · 金履永 · 金履載 · 李存秀 · 洪樂浚 · 李勉昇 · 洪命周 · 姜浚欽 · 李英發 · 李東萬 · 趙萬元 ○同月二十九日比較榜(上樑文) : 洪奭周 · 金處巖 · 黃基天 ○同日計劃榜 : 六分洪奭周, 二分黃基天 · 金處巖, 一分吳泰曾 · 嚴耆 · 柳台佐. 以上倍劃
1797년 9월초 2일	八月朔親試更試 御題賦「吾語子遊」· 在家製進 · 限初四日午前.
1797년 9월 26일 (임진)	春塘臺에서 초계문신 親試 및 試射. 七言古詩「龍門有遺歌」· 賦題「巴陵酒醉閑庭秋」.
1797년 10월초 3일	十月初二日去八月朔課試榜(策) : 洪奭周 · 金熙洛 · 黃基天 · 金履載洪樂浚曹錫中柳台佐嚴耆宋冕載李英發洪命周姜浚欽徐俊輔 · 李存秀承政院注書金履永 · 吳泰曾達 · 金處巖京畿都事趙萬元承政院注書柳遠鳴儀仗庫郎廳具得魯 ○今十月初二日抄啓文臣去九月朔課試榜(上樑文) : 金處巖 외
1797년 10월 10일 (을사)	十月親試. 表題「擬宋越州守臣請禁盜湖爲田者」· 記題「臥龍齋」· 賦題「會稽之石幾倍之」· 詩題「三江之上兩山之間疏爲二門小溢則縱其一大溢則盡縱之」· 論題「請湖爲田者始息」, 自願製述.
1797년 10월 11일	十月十一日親試榜(表) : 徐俊輔 · 嚴耆 · 李勉昇 · 李存秀(賦) · 申絢 · 洪樂浚 · 李英發 · 宋冕載. (詩) : 黃基天 · 吳泰曾 · 姜浚欽 · 金近淳 · 柳遠鳴. (論) : 洪命周 · 具得魯 · 洪奭周 · 金履載. (記) : 曹錫中 · 金熙洛 · 柳台佐 · 金處巖 ●抄啓文臣 正月以後親試課試는 시행하지 않도록 下敎. 抄啓文臣正月朔親試更試試題「若以鼻語」· 在家製進하도록 하고.
1797년 10월 18일 (계축)	上齋生應製試券과 去二月親試再試試券 考下. ○ 초계문신을 內閣과 鑄字所에서 나누어 시취. 내각 응시 詩賦同題「東坡日出於東山之上山谷曰左丘明」, 自願製進, 限左丘明. 주자소 응시 詩賦同題「山谷曰鑿壁借燈東坡曰孔光」, 自願製進. ●抄啓文臣去二月朔親試更試試榜(내각응시, 賦) : 曹錫中 · 金處巖 · 李英發 · 申絢 · 趙萬元 · 洪樂浚 · 柳台佐 · 洪命周 (詩) : 姜浚欽 · 金履載 · 金近淳 (주자소 응시, 賦) : 李勉昇 · 嚴耆 · 金熙洛 · 李東萬 (詩) : 吳泰曾 · 黃基天 · 徐俊輔 · 洪奭周 · 李存秀 · 宋冕載
1797년 10월 21일	去四月朔親試. 前日內閣應試 文臣은 鑄字所로, 鑄字所應試 文臣은 內閣으로 이동. 內閣應試文臣은 詩賦題「西清帷幄久立彷徨」, 鑄字所應試文臣은 詩賦題「聞長樂鼓鍾恍如夢寐」.
1797년 10월 22일 (정사)	四月再次親試 · 五月親試 試券 考下. 五月 내각응시 箋題「擬本朝宣傳官等謝諭以龍頭鳳尾鵲黃竹葉卽刻進呈」, 五月 주자소응시 箋題「擬本朝都摠制黃衡謝於御樓之辰諭以黃衡眠起矣」.

1797년 12월초 2일	去九月朔親試更試 및 去八月朔課講, 律賦題「雪」, 강서『朱書百選』●去八月朔課講榜(朱書百選第一編): 曹錫中·金近淳·申絢·李英發·洪奭周·李勉昇·柳台佐·姜浚欽·黃基天·金履載·具得魯·徐俊輔·李存秀·洪命周
1797년 12월초 3일	正月朔課試題五言六韻律「玄酒味方淡」, 三月朔課試七言六韻律「二之日其同」, 四月朔課試「量田議」, 五月朔課試「今古文辨」落點.
1797년 12월초 6일	去九月朔親試更試榜(律賦): 金近淳 외 ○同日去正月朔課試榜(五言六韻律詩): 李勉昇 외 ○同日去一月朔課試榜(七言六韻律詩): 洪奭周 외 ○同日去四月朔課試榜(議): 洪奭周 외 ○同日去五月朔課試榜(辨): 洪奭周 외
1797년 12월 7일	춘당대에서 柑製 更試 및 親試課講, 「擬齊群臣賀卽墨絳繒之功因覺鐘易羊之心」으로 柑製 및 親試의 箋題, ●去九月朔課講榜(朱書百選自第二編止第三編): 黃基天·金近淳·徐俊輔·金履載·洪奭周·申絢·李存秀·姜浚欽 ○同日去十月朔課講榜(朱書百選第三編): 洪奭周純略 외 ○同日去十一月朔課講榜(朱書百選自第三編止第四編): 洪奭周純通 외
1797년 12월초 9일	抄啓文臣去六月親試七言律詩題「槐陰滿庭」, 去閏六月朔親試五言律詩題「石鼓」, 限人定·在家製進. ○去六月朔親試榜(七言律詩) ○去閏六月朔親試榜(五言律詩) ○去七月朔親試榜(箋) ●去六月朔親試榜(七言律詩): 金近淳·李勉昇·洪奭周·金履永·吳泰曾·金履載·曹錫中·柳台佐·金熙洛·金處巖·嚴耆·李東萬·趙萬元·徐俊輔·李英發·姜浚欽·具得魯·李存秀·宋冕載·黃基天·洪命周 ○去閏六月朔親試榜(五言律詩): 金履永 외 ○去七月朔親試榜(箋): 金履永 외
1797년 12월 10일	八月朔親試題「辨杏有青枝」七言律詩·押枝
1797년 12월 11일	去三月朔親試更試比較榜(說) ○同日計劃榜 ●去三月朔親試更試比較榜(說): 金熙洛·洪奭周 ○同日計劃榜: 六分金熙洛·五分洪奭周
1797년 12월 12일	去六月朔課試榜(七言律詩) ●今十二月十一日去六月朔課試榜(七言律詩): 李勉昇·曹錫中·金履永·徐俊輔·洪命周·趙萬元·金熙洛·嚴耆·吳泰曾·姜浚欽·柳台佐·金履載·金處巖·宋冕載·金近淳·李東萬·具得魯·李英發·李存秀·洪奭周·黃基天
1797년 12월 14일	十月朔親試更試書題七言律詩「春帖」·韻「樞東同翁(公同)」, 月課試書題도 同題五言律詩·韻「春人新身」, ●今十二月十三日去八月朔親試榜(七言律詩): 李勉昇·吳泰曾·宋冕載·李存秀·金近淳·金履載·金履永·曹錫中·洪奭周·姜浚欽·柳台佐·金處巖·黃基天·嚴耆·趙萬元·柳遠鳴·金熙洛·具得魯·李東萬·徐俊輔·李英發·洪命周
1797년 12월 15일	去十月朔課試榜(五言律詩) ●今十二月十四日去十月朔課試榜(五言律詩): 金履永·徐俊輔·趙萬元·金近淳·曹錫中·吳泰曾·金履載·李存秀·嚴耆·李東萬·李勉昇·姜浚欽·柳遠鳴·金熙洛·宋冕載·洪奭周·具得魯·洪命周·柳台佐·黃基天·李英發·金處巖
1797년 12월 17일	去十一月朔親試題「且教人靜坐賦」, 在家製進·限明日申時. ○十一月朔課試書題望七言律詩「春色先歸」·「十二樓三王」·「如春花勝」, 首望落點. ●今十二月十八日抄啓文臣去十一月朔親試榜(賦): 具得魯·金熙洛·柳台佐·一金履永·趙萬元·李英發·李存秀·金近淳·柳遠鳴·金履載·洪奭周·姜浚欽·李東萬·嚴耆·李勉昇·金處巖·吳泰曾·宋冕載·黃基天·洪命周·曹錫中·徐俊輔 ○同日去十一月朔課試榜(七言律詩): 柳台佐 외
1797년 12월 19일	今十二月朔課試書題望五言律詩「稱彼兕觥」·「桃符」·「栢葉酒」, 末望落點. ○春塘臺에서 親試課試課講, 七言律詩題「稱彼兕觥」, ●抄啓文臣課講榜(朱書百選自第四編止第六編): 洪奭周·具得魯 ○同日比較榜: 洪奭周純略, 具得魯純不 ○同日十二月朔親試榜(七言律詩): 金履載·徐俊輔·吳泰曾·金處巖·柳台佐·金履永·李勉昇 ○同日十二月朔課試榜(五言律詩): 金熙洛·曹錫中·嚴耆·金近淳·趙萬元·金履永·姜浚欽·徐俊輔·李勉昇·吳泰曾.
1797년 12월 20일	今丁巳年親試都計劃榜: 三十三分半金履載 외 ○今丁巳年課試都計劃榜: 十六分金熙洛 외 ○今丁巳年課講都計劃榜: 二百三十一分半洪奭周 외

1798년(정조 22) 3월 10일(갑술)	去正月親試. 賦題「民曰雨我公田君曰駿發爾私」. 嚴耆 三下로 거수.
1798년 3월 10일	上齋生應製御題, 抄啓文臣親試問題, 賦「擬周命仲山甫補衮職詔」○去正月朔親試榜(賦) ●去正月朔親試榜(賦): 嚴耆 · 洪奭周 · 李東萬 · 金近淳 · 李存秀 · 徐俊輔 · 金熙洛 · 宋冕載 · 洪命周 · 曹錫中 · 柳遠鳴 · 申絢 · 金履載 · 金處巖 · 具得魯 · 李英發
1798년 3월 15일	去正月朔親試更試榜(上樑文) ●今三月十四日去正月朔親試更試榜(上樑文): 金履載 외
1798년 4월 12일 (병오)	便殿에서 초계문신 親試와 課講. 箋題「擬本朝湖南道臣請修劉仁軌所築帶方城以重關防」. 『史記英選』 제1편 강.
1798년 4월 14일	去二月朔課試序題「鄉禮合編」·「賞花釣魚宴」·「講製節目」, 三望入啓, 末望落點.
1798년 7월 3일	抄啓父臣七月朔親試題「均役十日說」, 限初六日申時.
1798년 8월 9일	去七月朔課試長望入啓, 議落點. 「靈星壽星祭議」·「一經講議」·「戶布議」, 三望入啓, 首望落點.
1798년 8월 14일 (을사)	초계문신 親試. 議題「水利」. 金處巖이 삼하로 거수.
1798년 8월 19일 (경술)	去四月親試更試. 更試題「常語辯」. 具得魯가 次上一로 거수. ●去四月朔親試更試榜(辯): 具得魯 · 洪奭周 · 李存秀 · 李勉昇 · 申絢 · 嚴耆 · 金履永 · 曹錫中 · 金啓溫 · 黃基天 · 姜浚欽 · 李東萬 · 金熙洛 · 柳遠鳴 · 金處巖 · 宋冕載 · 柳台佐 · (白文)李英發 · 洪命周
1798년 8월 19일	去四月朔親試再次更試題「潛虛圖說」, 限明日辰時. ●今八月二十日去四月朔親試再次更試榜(說): 金啓溫 · 李勉昇 · 金履永 · 柳遠鳴 · 曹錫中 · 金熙洛 · 申絢 · 黃基天 · 姜浚欽 · 柳台佐 · 洪奭周 · 李東萬 · 具得魯 · 李存秀 · 嚴耆 · (白文)金處巖
1798년 9월 19일 (기묘)	초계문신 親試와 試射. 去三月親試箋題「擬本朝鑄字所進新印五倫行實」, 九月親試賦題「楓宸」.
1798년 9월 27일	新舊選抄啓文臣三九月朔親試試券 考下. ●新舊選抄啓文臣去三月朔親試榜(箋): 金履永宋祥濂 · 李魯春 · 金處巖 · 金近淳 · 曹錫中 · 權峻 · 李弘達 · 沈象奎 · 朴崙壽 · 洪奭周 · 宋知謙 · 柳遠鳴 · 姜浚欽 · 趙得永 · 李騷默 · 李存秀 · 金啓溫 · 黃基天 · 李儒修 · 洪秀晚 · 金履載 · 沈奎魯 · 丁若銓 · 李基慶 · 李義甲 · 尹寅基 · 申絢 · 朴宗京 · 徐有聞 · 趙萬元 · 金熙華 · 柳台佐 · 嚴耆 · 朴鍾淳 · 李英發 · 申澈 · 尹持訥 · 韓用鐸 · 李東萬 · 尹致永 · 洪命周 ○今九月二十七日新舊選抄啓文臣親試榜(賦): 宋祥濂 · 李儒修 외
1798년 11월 23일 (임오)	誠正閣에서 去十月親試. 歌題「牛戴牛」. 洪奭周가 三中으로 거수.
1798년 12월 8일 (정유)	便殿에서 五月朔親試 및 二月三月四月五月朔六月七月朔課講. 七言古詩題「乾坤二卦講玉淵三峽」. ○去五月朔課試書題望「一日茅棟成」五言四韻律 落點, 六月朔課試書題望「冠玉」七言四韻律 落點.
1798년 12월 9일 (무술)	便殿에서 親試課講. 賦題「奏事延和殿」. 去八月課講은 申絢, 去九月課講은 洪奭周, 去十月課講은 黃基天, 去十一月課講은 金啓溫이 通을 맞아 거수. ○親試 嚴耆 三上으로 거수. ○去十月朔課試書題望「水車」五言四韻律 낙점. 去十一月朔課試書題望「三冬文史」七言四韻律 落點. ●今十二月初九日去九月朔課試榜(敎書): 金啓溫 · 李弘謙 · 黃基天 · 柳台佐 · 金近淳 · 李勉昇 · 曹錫中 · 金熙洛 · 姜浚欽 · 李存秀 · 洪奭周 · 申絢 · 金履載 · 洪命周 · 趙萬元 · 金熙周 · 李東萬 · 柳遠鳴 · 李英發 ○去十月朔課試榜(五言四韻律): 李勉昇 외
1798년 12월 10일(기해), 11일(경자)	便殿에서 去十一月親試. 七言四韻律詩題「魚龍出聽」. 11일(경자) 去十一月親試課試 試券 考下. ●七言四韻律詩「魚龍出聽」는 李勉昇이 二下로 거수, 七言四韻律詩「三冬文史」는 趙萬元이 三上一로 거수.

1798년 12월 12일	今十二月十二日親試榜(賦) ●親試榜(賦) : 金近淳 · 黃基天 · 姜浚欽 · 金處巖 · 李存秀 · 嚴耆 · 李勉昇 · 柳台佐 · 金啓溫 · 曹錫中 · 柳遠鳴 · 金熙洛 · 申絢 · 鄭取善 · 洪命周 · 李東萬 · 金履載 · 金熙周 · 李英發 · 洪爽周 · 李弘謙.
1798년 12월 15일(갑진)	今戊午年親試都計劃榜 : 金近淳十八分年姑少準職代熟馬一匹面給. 曹錫中 · 李勉昇 · 金履載 · 申絢 · 姜浚欽 · 黃基天 · 金處巖 · 嚴耆 · 金啓溫 · 李存秀 · 柳台佐 · 趙萬元 · 洪爽周 · 柳遠鳴 · 李英發 · 金熙洛 · 金熙周 · 李弘謙 · 李東萬 · 洪命周 · 金履永 · 徐俊輔 · 具得魯 · 宋冕載
정조 23년(1799) 4월초 2일	御熙政에서 去二月朔親試. 箋題「擬齊巖下貫珠者謝賜牛酒」. ●去二月朔親試榜(箋) : 金近淳 · 金處巖 · 李弘謙 · 姜浚欽 · 柳台佐 · 金啓溫 · 李存秀 · 洪爽周 · 洪命周 · 鄭取善
1799년 4월초 3일	去二月朔親試更試御題「霽月光風樓記」 ●今四月初三日去二月朔親試更試榜(記) : 李存秀 · 金啓溫 · 李弘謙 · 洪爽周 · 金處巖 · 姜浚欽
1799년 4월초 7일	春塘臺에서 新舊選抄啓文臣三月朔親試 및 試射. 表題「擬漢張騫進葡萄」.
1799년 4월초 8일	新舊選抄啓文臣去三月朔親試榜(表) ●今四月初八日新舊選抄啓文臣去三月朔親試榜(表) : 嚴耆 · 洪爽周 · 李存秀 · 金啓溫 · 李義甲 · 金近淳 · 趙得永 · 金處巖 · 姜浚欽 · 宋知謙 · 金熙華 · 金履載 · 趙萬元 · 李東萬 · 柳台佐 · 李弘謙
1799년 5월초 2일	去正月朔課試試題望詔「擬漢徙齊楚豪傑大族於關中」 · 「擬漢却千里馬」 · 「擬唐賜近臣細葛香羅」, 末望落點. ●今五月初四日課試榜(詔) : 金啓溫 · 趙萬元 · 李存秀 · 洪爽周 · 金熙洛 · 李弘謙 · 洪命周 · 姜浚欽 · 柳台佐 · 李英發
1799년 5월 22일	抄啓文臣去二月朔課試榜(箋) ●今五月二十二日去二月朔課試榜(箋) : 李英發 · 李存秀 · 姜浚欽 · 金啓溫 · 趙萬元 · 洪爽周 · 金近淳 · 柳台佐 · 洪命周 · 李弘謙.
1799년 6월초 4일	六月朔抄啓文臣親試題「擬農政上疏」, 在家製進, 限再明日.
1799년 6월 12일	更試御題「飯牛牛亦肥」賦 · 「夜夜篝緇眠獨遲」七言二十韻排律. ●今六月十二日更試御考榜(賦) : 趙萬元 · 金熙洛 · 李英發 · 柳台佐 · 金啓溫 · 李存秀 · (詩)金近淳 · 金履載 · 姜浚欽 · 洪爽周 · 李弘謙 · 洪命周
1799년 6월 13일	再試御題「乘舟歸鹿門」賦 · 「代孟浩然夜歸鹿門」七言古詩 ●今六月十三日再試御考榜(賦) : 趙萬元 · 柳台佐 · 李存秀 · 金啓溫 · 金熙洛 · 李英發 (詩)金履載 · 姜浚欽 · 洪命周 · 金近淳 · 李弘謙 · 洪爽周
1799년 6월 14일	三試御題「遂亦奇士」賦 · 「勝處輒念鵝湖約」七言古詩 ●今六月十五日三試御考榜(賦) : 趙萬元 · 金啓溫 · 李存秀 · 柳台佐 · 李英發 · 金熙洛 (詩) : 洪爽周 · 李弘謙 · 姜浚欽 · 金近淳 · 洪命周 · 金履載
1799년 6월 25일	抄啓文臣應試故寔條例. 親課試各體試製를 강화해서 親試에서 '故寔'命題를 分日製進케 함.
1799년 7월초 6일	抄啓文臣去二月朔課講榜(故寔/大學十五條) ●今七月初六日去二月朔課講榜(故寔大學十五條) : 金近淳 · 具得魯 · 金熙洛 · 柳台佐 · 洪命周 · 洪爽周 · 李英發 · 姜浚欽 · 金啓溫 · 李存秀 · 李弘謙 ○同日計劃榜 : 金近淳 · 具得魯 · 金熙洛 · 柳台佐 · 洪命周 · 洪爽周 · 李英發 · 姜浚欽 · 金啓溫 · 李存秀 · 李弘謙
1799년 8월초 7일	抄啓文臣去三月朔課講榜(故寔/朱子大全十條/國朝故事三條) ●今八月初七日去三月朔課講榜(故寔/朱子大全十條/國朝故事三條) : 金熙洛 · 洪爽周 · 柳台佐 · 金啓溫 · 姜浚欽 · 金近淳 · 申絢 · 李英發 · 具得魯 · 李弘謙 · 金履載 · 李存秀 · 洪命周 · 曹錫中 ○同日計劃榜 : 金熙洛 · 洪爽周 · 柳台佐 · 金啓溫 · 姜浚欽 · 金近淳 · 申絢 · 李英發 · 具得魯 · 李弘謙 · 金履載 · 洪命周 · 李存秀 · 曹錫中
1799년 9월 12일	摛文院에서 專經文武臣殿講, 文臣製述, 儒生殿講, 抄啓文臣親試. 五言十韻排律題「郎君玉樹高」, 賦題「讀書偏愛夜長時」.
1799년 9월 24일	抄啓文臣親試. 「雅誦」으로 序策을 짓게 함. 秋到記同題. 在家製進.

1799년 12월초 4일	今三月朔四月朔五月朔講製試官二望, 鄭大容·李晚秀 落點. ○五月朔課試書題望七言四韻律詩「社翁」·「雨麥浪」·「秧馬」, 首望落點, 限今日申時. ○三月朔課試書題望箋「擬本朝群臣賀用甲寅字重印四書輯釋」·「擬本朝御醫康命吉進濟衆新編」·「擬本朝籌司諸臣進籌謨類輯」, 首望은 三月朔落點, 副望은 四月朔落點. ●今十二月初四日去五月朔課試榜(七言四韻律詩): 李存秀·金近淳·曹錫中·姜浚欽·洪奭周·金啓溫·柳台佐·金熙洛·洪命周·李弘謙·李英發.
1799년 12월초 5일	抄啓文臣去三月朔課試榜(箋) ●今十二月初五日去三月朔課試榜(箋): 洪奭周·金近淳·金啓溫·李存秀·曹錫中·洪命周·李弘謙·姜浚欽·柳台佐·李英發.
1799년 12월초 6일	去四月朔課試榜(箋) ●去四月朔課試榜(箋): 金近淳·曹錫中·金啓溫·洪奭周·李英發·姜浚欽·李弘謙·李存秀·柳台佐·洪命周.
1799년 12월초 7일	去六月朔課試書題望七言四韻律「諸峯羅立似兒孫」·「清簾疏簾看奕棋」·「萬顆勾圓訝許同」, 首望落點, 限明日午時. 去七月朔課試書題望上梁文「寒泉精舍」·「白鹿洞書院」·「安樂窩」, 副望落點, 限明日申時. 去八月朔課試書題望五言四韻律「白日到羲皇春」·「星帶草堂」·「新梢纔出墻」, 副望落點, 限明日三更. 三題를 再明日 開門 때 함께 呈券하게 함. 去九月朔課試書題望七言四韻律「又臥旗亭送夕陽」·「早晚燕然刻燹詩」·「忽憶南山射虎時」, 首望落點. 副望은 十月朔課試題로 함. 去十一月朔課試書題望箋「擬齊群臣賀宴晉候投壺學矢曰寡人中此與君代興亦中之」·「擬魯群臣賀晉韓起見易象春秋曰周禮盡在魯」·「擬楚群臣賀屈完如齊師語方城以爲城漢水以爲池」, 首望落點.
1799년 12월초 9일	去七月朔親試는 今番 御製賡韻으로 申時까지 製進하게 함. ○去七月朔親試榜(賡韻五言四韻律詩): 洪奭周·金啓溫·曹錫中·金履載·金熙洛·李英發·姜浚欽·柳台佐·李弘謙·洪命周·李存秀
1799년 12월초 10일	春塘臺에서 新舊選抄啓文臣去九月朔親試와 秋等試射. [試官: 沈煥之·徐龍輔·鄭大容·徐榮輔·金祖淳·沈象奎] 七言十韻排律題「撒鹽和羹梅」.
1799년 12월 11일	去八月朔親試七言四韻律題「不是尋行數墨人」, 去十一月朔親試賦題「讀書猶自力愛日似兒時」. ●去八月朔親試榜(七言四韻律): 金熙洛·李英發·曹錫中·洪奭周·金近淳·金啓溫·柳台佐·金履載·李弘謙·李存秀·姜浚欽·洪命周 ○同日新舊選抄啓文臣去九月朔親試榜(七言十韻排律): 曹錫中 등 ○同日去十月朔親試榜(賦): 曹錫中 등 ○今十二月十二日去五月朔親試榜(策): 李英發 등 ○同日去六月朔親試榜(上疏): 李英發 등 ○同日去十一月朔親試榜(跋): 金啓溫 등 ○同日去六月朔課試榜(七言四韻律): 金近淳 등 ○同日去七月朔課試榜(上梁文): 金熙洛 등 ○同日去八月朔課試榜(五言四韻律): 金近淳 등 ○同日去九月朔課試榜(七言四韻律): 柳台佐 등 ○同日去十月朔課試榜(七言四韻律): 姜浚欽 등 ○同日去十一月朔課試榜(箋): 金啓溫 등
1799년 12월 13일	十二月朔課試題中 副望 五絶, 末望 七絶로 課試更試에서 製進하게 함

